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 정 희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

김 명 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 정 희

인 준 서

문정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고는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생애와 문학, 형식적인 면에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특성, 그리고 내용적 측면인 수필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피천득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 보면, 어지러운 한국근대사를 몸소 체험하고 견디어 온 그는 문학을 통해 현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식면에서, 피천득 수필집 『인연』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피천득 수필의 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해 명료한 간결체의 서술미,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명료한 간결체의 서술미에서는, 억지스러움이나 굳어터지는 물론, 속됨이 없이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에서, ‘수필도 시처럼 쓰고 싶었다’는 피천득은 은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많이 썼음이 확인된다.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에서는, 수필 「인연」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 시간적 질서와 공간적 거리 그리고 꽃의 비유법으로 잘 짜여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천득 수필에서 중추를 이루는 여성 ‘어머니와 딸 서영이’, 그리고 ‘여성예찬과 구원의 여상’에 대하여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고찰하였다. 남다른 사랑과 외로움 속에서 겪은 피천득의 개성 형성 과정이 수필 문체의 특성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를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 영성의 추구하고 관조의 삶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피천득이 사소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한평생 조용하게 살아 낸 삶을 통해 그의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에서는, 그가 다른 대부분의 인물들의 위대한 행적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작고 소박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한 인간미에 대해 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에서, 피천득은 생명력을 가진 젊은 여성을 예찬한다. 삼십대에 자신의 곁을 떠난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여성의 표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성의 추구하고 관조의 삶에서는, 피천득 수필문학의 특성의 하나인 영성이 드러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의 여상」, 「눈물」, 「유순이」, 「기도」, 「아인슈타인」 등에 나타난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피천득이 상징하는 여인상은, 완전한 여인상이 아니라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애쓰는 여인상이라 할 수 있다. 영성의 세계가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천득 수필의 기법과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피천득 수필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인생의 향취와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수필세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사소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피천득 수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피천득 수필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나타난 그의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피천득의 수필 작품에 나타난 문학관, 수필에 표상된 영성의 세계와 문체의 특성 등을 연구하고 영성을 체득한 수필가로서의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방법	7
II. 피천득의 생애와 문학	10
III. 피천득 수필의 표현기법	17
1) 명료한 간결체의 서술미	19
2)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	23
3)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	27
4)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	31
IV.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	36
1)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	37
2)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	48
3)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	55
4) 영성의 추구와 관조의 삶	68
V. 결 론	82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 작품을 객체로 보자는 쪽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필문학은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색의 표현인 만큼 작가와 작품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투영되어 창작된다는 특성으로 볼 때 수필의 문학성은 작품 자체는 물론 작가가 경험한 시대상, 역사성, 사회상 등을 떼어 놓고 연구할 수 없다. 수필문학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문학 양식이며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학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필 작가는 자신이 체득한 경험을 작품에 표현하게 되어 있다.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해이해진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독자들은, 작가 자신의 인생 체험을 기록할 수 있는 문학 장르로, 사실담인 수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생활 주변의 일들이 소재가 될 수 있는 수필의 특성이, 많은 향유[독자] 층을 확보함으로써 현대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필문학의 대중화로 많은 독자가 수필문학을 쉽게 접하게 되었지만, 질적 수준은 독자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독자는 문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수필문학의 내용이 참신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독자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이는 수필 작품에 문학적 정서를 담지 않으면 독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명유명의 수필이 우후죽순처럼 양산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실제와 이유는 여하 간에 수필이 하나의 확고한 문학 장르로서 서기 시작한 징조요, 한국적인 참다운 수필문학이 태동하려는 희망으로 받아들여 좋을 것이다.¹⁾

이러한 상황임에도 수필문학은 타 장르에 비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필문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올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수필문학과 수필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 수필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로 수필가인 금아(琴兒) 피천득(皮千得; 1910-2007)에 대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피천득의 수필이 수필문학사에 서정적 수필의 획을 그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피천득이 한국 현대수필문학사에서 우리 수필문학의 수준을 끌어올려 수필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²⁾ 수필문학사에서 피천득의 작품들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피천득 수필문학에 대해서는 그의 명성만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³⁾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수필을 통해 일상의 사소하고 자잘함을 아름답게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있다. 피천득의 수필은 투명하고 순수한 정서에 의해 사랑을 노래했고, 또 체험을 통한 인생 관조의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글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천득이 수필작가로서 자신이 체득한 영성을 작품에 어떻게 표

1) 윤오영, 『수필문학 입문』, 태학사, 2011. p.158 참조.

2) 정진권, 『한국수필문학연구』, 신아출판사, 1996, pp.58-81.

3) 피천득, 『인연』, 샘터사, 1996(초판).

상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수필의 형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천득 수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무형식의 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형식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에 대한 인식은 수필이 전혀 무형식의 글이란 말이 아니라 시나 소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필의 형식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피천득 수필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천득 수필가의 작품집 『인연』에 수록된 작품을 텍스트로 내용적인 측면인 피천득 수필의 세계와 형식적인 측면인 수필의 표현기법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특히 피천득 수필문학의 영성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금야 피천득의 수필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현대수필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필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양산되었어도 타 장르에 비해 작가나 작품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며 비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다.

실제로, 피천득 수필문학의 연구는 그 작품에 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그리 많지는 않다.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의 수집과 그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피천득의 수필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

누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영숙, 임정옥, 이영조의 논문이 있다. 그 중에서 최영숙은 수필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임정옥은 피천득의 수필을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영조는 평이함을 가장 치밀한 구성 형식으로 형상화했다고 연구하였다. 이 세 사람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치밀한 구성작업이 필요하다고 한 최영숙은, 피천득 수필의 유형에 나타나는 구성법을 나열구성, 기본구성, 액자구성, 긴축 구성으로 나누어 나열구성에서는 피천득의 수필은 서정적 수필로 대표된다. 서정적 수필에는 나열 구성으로 피천득의 서정적 수필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제재들을 나열식으로 배치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담아내었다. 그리고 피천득의 인물 구성에 나타나는 구성법은 대부분이 기본구성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물 구성은 기본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 회상의 방법으로 쓰인 수필은 액자구성법, 긴축구성에서는 교훈수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⁴⁾ 형식적 측면에서 수필의 구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담긴 수필작품에 대해 임정옥은 문학형 수필, 논술형 수필, 교양형 수필의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특히 문학형 수필은 수필문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문학 수필문, 기행문, 일기문, 서간문의 형태를 가진다. 문학 수필문은 가장 전형적인 수필 형식으로 언어 예술적 향기가 그윽한 내용을 담아낸 글이다. 피천득의 작품은 수사를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글이 많다. 「수필」 「신춘」, 「장미」, 「오월」, 「비원」, 「나의 사랑하는 생활」 등이 문학형 수필에 속한다고 평가한다.⁵⁾

피천득의 수필론에 대해 이영조는 그의 작품 「수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한다. 피천득이 자신의 수필론을 한 편의 수필로 그려낸 독특한 기법은 논

4) 최영숙,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5) 임정옥, 「피천득의 수필관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리적인 이론 방식이나 학술적인 제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양한 은유를 빌려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수필론들과 대별된다. 피천득의 수필론의 핵심은 고귀하나, 절대 두드러지지 않고, 평이함을 가장 치밀한 구성 형식으로 형상화했다고 연구하였다.⁶⁾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혜정, 안경란, 류현경의 논문이 있다. 그 중에서 안경란은 피천득 수필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류현경은 피천득의 주제 의식에서 가부장적 여성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이채롭다.

피천득 작품에서 수필의 세계관을 생활관. 여성관. 전통관. 인생관, 인간관으로 분류해서 안경란은 연구하고 있다. 생활관에서는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에 지극한 관심과 소소한 것에 대한 즐김과 여유를 드러냈고, 여유로움 혹은 방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관에서는 어머니와 딸에 대한 애정이 여성예찬으로 그리고 구원의 여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인간관에서는 인간미를 지향한다고 보았다.⁷⁾ 피천득의 작품집 『인연』에 나타난 주제의식에서, 류현경은 인간 간의 소통과 교감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그리고 일상적 삶의 자세와 가부장적 여성의식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은 기존의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여성성은 문학작품 속에 잘 드러나는데, 피천득의 수필에서도 여성의 수용적이고 순응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고 논하고 있다.⁸⁾

피천득 수필에 대한 평가로는 비교적 많은 ‘소논문’이 있다. 소논문이기는 하지만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천득은 자신의 수필관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 작품만을 추려서 이 수필집 『금아문선』을 엮어낸 것이다.’라고 차주환은 평한다. 피천득의 수필

6) 이영조, 「한국 현대 수필론」,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7) 안경란, 「피천득 수필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8) 류현경, 「피천득의 『인연』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집 편찬 태도는 세심하고 겸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느 점에서 는 고고함을 느낄 정도로 자신만만한 면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라고 했다. 또한 금아의 수필은 한국의 전통적 문학을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의 문화 그리고 영미 문학을 전공한 학자의 생애를 영위하였으니, 그가 써낸 수필이 고도의 문학 가치를 드러냈다고도 평가한다.⁹⁾

피천득의 수필세계에 대해 정정호는 사랑이라 평한다. ‘사랑’은 금아에게 ‘인연’. ‘기억’. ‘여림’. ‘돌봄’을 통합시켜주는 하나의 ‘대원리’이다. 희랍 시대부터 가스통 바슐라르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대개, 물, 불, 흙의 4원소로 보았다. 금아 문학의 중심 개념인 인연(대기), 기억(불), 여림(물), 돌봄(흙)은 바로 금아의 삶의 세계의 4원소와 같은 것이리라. 이 네 가지는 금아에게는 존재의 바퀴요 실존의 바퀴요 실존의 굴렁쇠를 이루는 부분들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 평한다.¹⁰⁾ 금아 수필세계를 열어 보이는 열쇠를 ‘정’이라고 정진권은 규정한다. 금아 수필은 정다운 목소리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매력이 있다고 하며, 소재에 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정이 간다고 했다. 그리고 창조성에 관한 문제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수필로 「인연」을 들었다.¹¹⁾ 김우창은 금아 선생의 세계가 깨끗하고 맑은 세계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도려내고 단순화하는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니다. 선생이 인생의 어둡고 뒤틀린 것들을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은 긍정에의 동경이 너무 강한 때문이지 그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늘 아름다움의 주변에 서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는 배경이 될 뿐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는 그 아름다움이 덧없는 것이며 끊임없는 소멸의 위험에 있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깃

9)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세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168.

10) 정정호, 「‘인연’, ‘기억’, ‘여림’, ‘돌봄’의 생태 윤리학」,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119.

11) 정진권, 「수필문학의 구성 고찰」, 『한국수필문학연구』, 신아출판사, 1996, pp.336-339.

들어 있다고 평한다.¹²⁾

박연구는 피천득을 ‘한국의 찰스 램’이라고 부르면서 서구의 수필이 문학으로 정립된 것은 찰스 램의 『엘리아 수필집』이듯이 한국의 수필이 문학으로 정립된 것은 금아 선생의 『금아문선』이라고 평가한다.¹³⁾ 황필호는 지금까지 우리가 금아 식의 수필만을 유일한 수필로 믿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서정수필과 반대되는 철학수필이나, 개인수필에 반대되는 사회수필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¹⁴⁾

이상으로 피천득 수필문학에 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천득의 작품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연구한 논문을 나누어 본 결과, 피천득의 수필문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제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와 피천득 수필문학의 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우리수필문학의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연구 방법

수필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색의 표현인 만큼 작자와 작품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평가는 작가와 작품을 따로 분류하여 평하는 방법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필은 작가 자신의 인생체험을 기록할 수 있는 문학의 한 장르로, 또한 사실담이기도 하다. 사실담으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투영되어 창작된다는 특성으로 볼 때 수필의 문학성은 작품자체는 물론 작가가

12) 김우창, 「금아 선생의 수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155.

13) 박연구, 『수필과 인생』, 범우사, 1994, p.159.

14) 황필호, 「피천득론」, 『우리수필평론』, 집문당, 1997. pp.87-107 참조.

경험한 시대상과 역사성, 사회상 등을 떼어 놓고 연구할 수는 없다.

수필은 여러 모양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문학형식이며 작가 자신의 내면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기 때문이다. 수필문학의 작가는 자신이 체득한 경험의 세계를 작품에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방법은 작은 일상에서 인생의 향취를 느껴온 피천득의 삶과 그의 생애와 문학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피천득 수필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나타난 그의 문학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피천득의 수필 작품에 나타난 문학관, 수필에 표상된 영성의 세계와 문체의 특성을 연구하고 영성을 체득한 수필작가로서 삶과 문학에 대해 고찰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6년에 발행된 피천득 수필집 『인연』(샘터사)에 수록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인연』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그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그의 수필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수필작품은 작가의 현실 체험이 작가의 개성과 연결되어 사실담으로 창작된다는 독특한 작품적 특징으로 볼 때, 작품 자체로서의 문학성은 물론이거니와 작가가 체험했던 시대상이나 사회상, 역사성, 영성 등을 따로 떼어 연구할 수는 없다.

본고는 이러한 수필의 고유 특징을 반영하여 우선 제1장 서론에서, 1) 연구 목적, 2) 연구사 검토, 3) 연구 방법, 제2장에서는 피천득의 생애와 문학, 제3장에서는 피천득 수필의 표현기법으로 1) 명료한 간결체의 서술미, 2)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 3)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 4)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로, 1)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 2)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 3)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 4) 영성의 추구하고 관조

의 삶 등으로 나누어 탐구하고, 제5장 결론, 이런 방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수필집 『인연』¹⁵⁾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식적 측면에서, 수필의 형식에 대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형식의 글’ 또는 ‘붓 가는대로 쓰는 글이라는 인식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수필의 형식이 시나 소설에 비해서 자유롭다는 의미이지 무형식은 아니란 것이다. 수필은 엄연한 형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피천득 작품에서 문학형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피천득의 수필이 투명하고 순수한 정서에 의해 사랑을 노래했고, 체험을 통한 인생 관조의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글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작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피천득 수필의 본질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인연』의 작품들의 종합적인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의 수필문학 연구에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특성과 영성, 그리고 문체의 표현기법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5)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은 1996년 5월 샘터사에서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2007년에 3판이 발행되고, 그 20쇄가 2011년에 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6년 5월 발간된 초판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간간이 제3판(20쇄)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Ⅱ. 피천득의 생애와 문학

피천득은 1910년 4월21일 종로에서 아버지 피원근과 어머니 김수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0살 때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¹⁶⁾ 이러한 것은 유년시절에 잃은 어머니에 대한 상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아가 처음 영어를 배운 것은 1923년 그의 나이 13세 때인 서울고보(후에 경기중)에 입학할 하고서였다. 영어교사인 일본인 고리야마로부터 영시를 배우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다. 그 무렵 한국 최초 근대 소설가였던 이광수(1892-1950)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의 나이보다 18년 연상인 이광수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었다고 했다.¹⁷⁾

1926년 제일고보에 입학했다가 4학년 때 춘원 이광수의 권유로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을 만나기 위해 상해로 갔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친척들이 금아의 재산을 처분하여 차지했는데, 그중 토지매매 대금의 일부인 5천 원이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춘원이 그것을 가지고 상해로 가라고 권했다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했다 한다.¹⁸⁾

중국 상해로 유학을 떠난 금아는 귀족학교였던 토마스 한버리 공립학교(Thomas Hanbury Public School)에서 수학하였다. 당시에는 젊은이의 대부분이 주로 일본으로 유학하던 시대였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던 국제도시 상해로 춘원이 추천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금아는 전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16) 이선주, 「90에 엄마와 막내딸 못 있어 가난한 행복」, 『한국논단』 통권 제25호. 1996, p.121.

17) 정정호, 「나의 영원한 스승 피천득 선생님: 영어, 영시 그리고 문학으로의 초대」, 『영미문학교육』 제14집 2호. 2010, p.320.

18) 손광성, 「금아 피천득 선생의 생애」, 피천득 선생 100주년기념 세미나, 2010. 6. 4. 프레스센터.

강의를 들으며 미국인 교수들로부터 철저한 어학 훈련을 받았다. 학부 졸업 논문으로는 ‘에이즈의 시’에 관해 썼다. 금아는 이때 이미 당시 한국인으로서 는 최고 수준으로 영어 말하기와 쓰기에 통달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1930년 『신동아』에 시 ‘서정소곡’, ‘소곡’, ‘파이프’ 등을 발표 하였다. 또한 이 무렵 그의 스승이면서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된다.

1937년 상해 호강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귀국 후 1945년 일제에서 해방 되기까지 금아는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그가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유학했고, 또한 상해에서 만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스승처럼 따르고 도산이 이끄는 흥사단 단원이었으므로 일제 당국으로부터 낙인이 찍혔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9월 초순 미군정이 시작되자 살림이 무척 어려웠던 금아는 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오천석 씨의 소개로 미군정청의 문교 책임자인 리카드의 보좌역을 맡게 되었다.¹⁹⁾ 그 후 1945년 10월 문을 연 서울대학교 예과에 영어를 가르치는 예과교수로 채용돼 46년까지 재직하였다. 금아는 후에 예과 시절 1년이 일생 동안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회고하였다.

1947년 『서정시집』(정음문고)을 출간하게 된다. 195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가게 된다. 1960년 『금아시문선』을 출간한다.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로, 1969년 『산호와 진주』(일조각)를 출간, 영문판 *A Flute Player*를 낸다. 1976년에 수필집 『수필』(범우사), 역서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정음문고)을 출간하고 1980년 『금아 문선』, 『금아 시선』(일조각)을 출간. 1993년 시집 『생명』(동학사)을, 1996년 수필집 『인연』(샘터사)을 출간하였다. 그 어간에 『인연』의 개정판이 나오던 해(2002)에는 KBS가 「인연」 속의 여주인공 ‘아사코’의 행방을 추적하는 야심 찬 기획으로 전 국민

19) 정정호, 「나의 영원한 스승 금아 피천득 선생님」. 위의 책, p,321.

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²⁰⁾

피천득의 삶은 ‘청자연적이고 난이고 학’인 그의 수필 그대로이다. 평생을 물 흐르듯이 맑고 조용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의 작품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드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한 폰드 반을 사 주고 싶다.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 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도 마질을 할 것이다. 나는 5만 원, 아니 10만 원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²¹⁾

수필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색의 표현인 만큼 작가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필은 사실에 바탕을 둔 사실담이라는 점에서 수필이 곧 수필 작가 자신의 인격적 나상(裸像)이 될 수 있다. 위의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피천득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금 돈으로 한 오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리고 딸에게는 바지를, 아내에게는 털실을 적조해진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여 그의 욕심 없이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사랑한 작가이며 또한 문학을 사랑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임영천, 「한국 수필 문학사-피천득」, 『수필 문학의 이해』, 빛나리, 2012. p.157.

21) 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위의 책. p.211.

피천득은, 자신의 생애와 경력으로 보아도, 그는 수준 높은 수필문학의 작품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수련을 쌓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 「수필」에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로 시작되듯이 비유를, 한국의 전통적인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유학생생활의 경험과 문화와 생활을 경험적으로 터득하였다. 또한 구미 각국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해와, 영미문학을 전공한 학자의 생애를 가졌으니, 그의 수필이 높은 수준의 문학 가치를 드러낼 소지가 마련되었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짐작이 갈 만한 일이다.²²⁾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천득의 수필의 세계에 대해 차주환은,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그의 수필관에서나 수필작품에서나 다 찰스 램을 중심으로 한 수필의 성격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이를테면 수필을 청자연적에 비유하는 태도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동양적 내지는 한국적 문장관을 생리화한 경지까지 소화시키고 있다.²³⁾라고 말하고 있다.

피천득은 자신의 수필인 「순례」에서 문학의 본질에 대한 문학론을 피력하고 있다. 작품 「순례」에서 자신의 문학의 본질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경험의 표현이다.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농도가 진하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시인이나 소

22) 차주환, 앞의 책. p.168 참조.

23)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세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p.170-171.

설가의 눈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면을 엿볼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 침통한 비극을 체험할 수도 있다. 문학은 작가의 인격을 반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을 통하여 숭고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지 못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나의 친구다. 같은 높은 생각을 가져 볼 수도 있고 순진한 정서를 같이할 수도 있다. 외우畏友 치옹痴翁의 말같이 상실했던 자기의 본성을 되찾기도 한다. 고전을 읽는 그 동안만이라도 저속한 생활에서 해탈되어 승화된 감정을 갖게 된다.”²⁴⁾

피천득은 「순례」에서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 경험의 표현이며, 우리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눈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면을 엿볼 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 침통한 비극을 체험할 수 있다. 고전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어도 그들은 언제나 나의 친구다.”라고 한다. 피천득은 어려서 조실부모(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0세 때 어머니마저 여읜)하였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거친 인생의 풍랑에서 시달리며,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문학에 대한 사랑과 문학의 본질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천득에게 있어서 문학의 본질은 ‘정’이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상이나 표현 기교에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으나 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정이다. 그 속내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적인 슬픔 상실 고통’을 달래주는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다.”²⁵⁾

문학 속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적인 슬픔, 상실, 고통을 달래주는 연민의 정이 흐른다.’고 한다. 문학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슬픔 상실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공허히 여기는 것이라고

24) 피천득, 「순례」, 앞의 책, p.259.

25) 피천득, 「순례」, 앞의 책, 같은 쪽.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천득의 문학관의 토대가 연민의 정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소하고 작은 일상생활의 고단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한다.

이와 함께 피천득이 문학을 읽는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작은 놀라움, 작은 웃음, 작은 기쁨을 위하여 글을 읽는다. 문학은 낮은 사물에 매력을 부여하여 나를 풍유하게 하여준다. 구름과 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눈, 비, 바람, 가지가지의 자연 현상을 허술하게 놓쳐 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하여준다. 도연명을 읽은 뒤에 국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 워즈워스의 시를 읽은 뒤에 수선화를 더 아끼게 되었다. 운곡의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알기에 대나무를 다시 보게 되고, 백화 나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시인 프로스트를 안 후 부터이다.”²⁶⁾

피천득은 어둡고 어지러운 한국근대사를 직접 체험하며 살았다. 1919년에 기미 3·1운동 만세 사건이 있었다. 1930년대 상하이에서 공부할 때는 상하이 사변과 중일전쟁을 겪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과 1950년 6·25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4·19와 5·16을 지나 유신독재까지 경험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피천득은 「순례」에서 “문학은 낮은 사물에 매력을 부여하여 나를 풍유하게 하여준다. 구름과 별을, 그리고 눈, 비, 바람의 자연현상을 즐길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운곡(원천석)의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알기에 대나무를 다시 보게 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피천득은 문학을 통해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은 우리들의 어지럽고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들을 지탱시켜 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피천득이 어둡고 힘든 수난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문학이 아니었을까 한다.

26) 피천득, 앞의 책, p.264.

피천득의 문학론은, 결국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명제의 믿음 아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고 놓치기 쉬운 것들을 연민의 정으로 끌어올려 문학에 담고 있다. 그리하여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과의 소중한 인연들로 만들어진 연민의 정을 통해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생활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Ⅲ. 피천득 수필의 표현기법

이 장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피천득 수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피천득의 수필에서는 은유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 표현의 간결성과 절제성과 함께 독자에게 서정적 느낌을 많이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피천득은 『인연』의 ‘서문’에서 ‘산호와 진주가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 예쁘지 않은 애기에게 엄마가 예쁜 이름을 지어주듯이 나는 나의 이 조약돌과 조가비들을 「산호와 진주」라 부르련다.’고 한다. 산호와 진주, 조약돌과 조가비와 같이 비유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또한 『인연』 속에 수록된 「수필」에서 그는 자신의 수필관을 피력하는데, 논리 정연하고 체계적인 학술적 방법을 쓰지 않고, ‘수필’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비유법을 써서 서정적인 경수필(輕隨筆)로 제시하고 있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을 쓰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²⁷⁾

피천득의 표현에 따르면 수필이란 다양한 대상을 제재로 하여 작가의 개성적인 필체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글이다.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작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글로 표현되는 것이다.

27) 피천득, 「수필」, 앞의 책, p.18.

또한 피천득의 「수필」에 따르면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 틀에 박힌 제한된 구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천득의 표현은 간혹 부정형성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수필이란 문학은 차를 마시는 것과 같아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경우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표현하여 수필이 자유로운 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짜임새와 표현의 참신성을 보여주어야 할 문학 장르라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수필의 형식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수필 형식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에 대한 인식은 수필이 전혀 무형식의 글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형식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필에서도 내용인 주제를 승화시키기 위한 표현 형식으로 문장, 문체, 구성 등이 사용된다. 즉 수필을 문학의 한 장르라고 볼 때, 수필은 미학적 표현 기법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이다. 형식은 작가의 사상이 담긴 그릇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제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며 결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특성인 수사법이 활용되어서 개성적인 문체가 창조된다. 작가는 또한 질서 있는 언어의 나열을 위해 문장을 조직하고 치밀한 구성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수필의 형식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장에서는 피천득 수필 작품의 형식의 하나인 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8) 이영조, 앞의 논문, pp.90-91.

1) 명료한 간결체의 서술미

문체의 종류는 대체로 간결체, 만연체, 강건체, 우유체, 건조체, 화려체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간결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약해서 적은 어구로 표현한다. 한 글자 한 마디마다 바짝 조이는 맛이 있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자칫하면 무미건조할 위험이 있다.²⁹⁾ 피천득의 수필은 원고지 10장 안팎의 짙막한 분량으로 서정성과 함께 말할 내용은 거의 다 담아내고 있다. 간결하고 명료한 작품으로는 「장미」, 「오월」, 「모시」, 「여성의 미」, 「맛과 멋」, 「초대」, 「유머의 기능」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장미」, 「오월」, 「맛과 멋」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집에다 꽃아 놓으려고 장미 일곱 송이를 사가지고 오다가 도중에 만난 친구들한테 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처지를 실감 있게 그리고 있는 피천득의 작품인 「장미」부터 살펴보자.

잠이 깨면 바라다보려고 장미 일곱 송이를 샀다.

거리에 나오니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간다. 여학생들도 내 꽃을 보고 간다.

전차를 기다리고 섰다가 Y를 만났다.

언제나 그를 만나면 웃더니 오늘은 웃지를 않는다.

부인이 달포 째 앓는데, 약 지으려 갈 돈도 떨어졌다고 한다.

나에게도 돈이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부인에게 갖다 드리라고 장미 두 송이를 주었다.

Y와 헤어져서 동대문 전차를 탔다. 팔에 안긴 아기가 자나 하고 들여다보는 엄마와 같이 종이에 싸인 장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문득 C의 화병에 시든 꽃이 그냥 꽃혀 있던 것이 생각났다.

29) 이태준, 앞의 책. p.293.

그때는 전차가 벌써 종로를 지났으나 그 화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³⁰⁾

피천득은 그의 수필에서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니고 살았던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잔디 밟기를 좋아하고,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하고,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고, 피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며 그러한 삶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집에다가 꽂아 놓으려고 장미 일곱 송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만난 친구에게 주게 되는데, 장미 꽃송이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피천득은 결국 C의 하숙집의 빈 꽃병에 장미 두 송이를 꽂아 주고 집을 향하였다. 다시 전차길에서 애인을 만나러 가던 K를 만나게 되고 그는 또다시 애인한테 선물하라며 남은 장미 세 송이를 K에게 건네준 이야기이다. 역지사리움이나 군더더기는 물론 속됨이 없이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꽃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피천득의 행복한 모습이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는 아마도 피천득 자신의 품성과 시인이라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작품 「오월」을 살펴보면 작가의 간결한 문체가 은유법과 결합되어 대상을 인상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
같이 보드랍다.

30) 피천득, 앞의 책, p.42.

스물한 살이 나었던 오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얹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단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시월 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得了愛情痛苦
失了愛情痛苦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 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신록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 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오월은 지금 가고 있다.³¹⁾

피천득은 작품 「수필」에서, 수필이란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라고 말했다. 피천득이 젊지 않은 나이의 어느 날, 아름다운 오월을 보내면서 스물한 살 때의 젊은 날을 회상하고 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와 같이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의 표현 기법적 특성이 있다. 또한 그는 ‘득료애정통고(得了愛情痛苦), 실료애정통고(失了愛情痛苦)’라는 시를 남기고 젊은 날에 떠난 정열적인 중국 시인을 기억한다. 그리고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와 같이 피천득은 오월 속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고 하는 심적 여유를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작품 「오월」

31) 피천득, 앞의 책, p.42.

은 은유법으로 써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오월의 상징성을 여러 제재들을 나열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오월이라는 원관념에 대해 보조관념으로 비유해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작품에서는 ‘하얀 손가락’과 ‘비취가락지’에 대해서 색채 감각으로 비유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오월을 ‘어린 딸기’와 ‘모란’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맛과 멋」에서도 ‘맛’과 ‘멋’의 대비를 대구법을 활용한 간결한 문체로 보여주고 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과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얇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되는 것은 맛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멋과 맛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³²⁾

피천득의 작품 「맛과 멋」이란 수필이다. 이 작품은 한 페이지 정도의 적은 분량이면서도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한 간결체로서의 문체의 특성이 있다. 그

32) 피천득, 앞의 책, pp.76, 77.

리고 ‘맛은 감각적이고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고 멋은 은근하다’,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맛과 멋’을 대비시켜 대구법이라는 형식의 기법적 특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맛은 감각적으로 멋은 정서적으로’, ‘맛은 적극적으로 멋은 은근하다’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는 명료하고 간결한 서술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

수필도 시처럼 쓰고 싶었다는 피천득은, 수필을 쓸 때 명료하고 간결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산문적이라기보다는 시적이다. 그래서 그는 시와 수필을 아름다운 언어로 작품을 썼다. 그의 작품들은 수사적 표현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수필문학계에서 미학적인 작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최영숙은 이러한 것은 그가 시인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³³⁾ 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수필에서는 직유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피천득은 수사적 표현기법의 하나인 은유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는 수사법에 능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 그리고 탁월한 비유로 그는 수필작품을 썼다. 그는 비유와 상징으로 작품을 썼다. 비유법 가운데서도 은유법에 능한 그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자. 작품의 수사적 표현 기법인 은유로 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수필」, 「봄」, 「빠리에 부친 편지」, 「오월」, 「눈물」, 「맛과 멋」 등이 있다.

수필은 청자靑瓷 연적이다. 수필은 난蘭이요, 학鶴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나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

33) 최영숙,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42.

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선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마는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散策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³⁴⁾

피천득은 위의 작품 「수필」을 통하여 그 자신의 수필론을 피력하였다. 수필로 쓴 수필론인 「수필」에서 피천득은 수필은 ‘청자연적, 난, 학, 여인, 길, 마음의 산책, 차를 마시는 일, 파격’ 등 다양한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수필의 성격을 다의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⁵⁾ 이 글의 반 이상이 많은 이미지를 함유하고 있는 은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시적인 여백의미를 지니고 있다.

피천득은 ‘수필도 시처럼 쓰고 싶었다.’³⁶⁾고 한 바 있다. 이러한 피천득 수필의 간결한 문체는 수필을 시처럼 쓰고 싶어 했던 피천득 개인의 특성에 관계된다고 생각된다. 직유는 산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수사법이지만, 특히 시에서의 은유는 구체화, 형식화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천득의 수필에서 특히 은유적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명료하고 간결한 그의 문체가 독자에게 서정적 느낌을 많이 주고 실감나게 전달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품 「수필」에서 그는 자신의 수필관을 피력하는데,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학술적 방법이 아닌, ‘수필’에 대한 정의를 직설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다양한

34) 피천득, 앞의 책. p.17.

35) 이해선, 「피천득의 시와 수필」.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문학비평』 제17집, 2010. p.60.

36) 피천득, 「시와 함께한 문학 인생」. 『내가 사랑하는 인생』, 샘터, 2005. pp.12-13.

비유법을 써서 함축적이고 서정적인 경수필로 제시하고 있다.

계속해 피천득의 작품 「수필」을 보면,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중 략)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이다. 그 제재題材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液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行路이다.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無味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중 략)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³⁷⁾

위의 작품에서 “수필의 색깔은 ‘황홀하거나 진하지’ 않고,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라고 하여 수필을 회화적 이미지의 은유법으로 피천득은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필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즉 후각적 그리고 미각적 이미지의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수필이란 다양한 대상을 제재로 하여 작

37) 피천득, 『인연』, 샘터, pp.18-19.

가의 개성적인 필체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글이다.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작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피천득의 「수필」에 따르면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라고 하여 어떤 형식에 묶여 제한된 구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피천득 수필의 표현은 간혹 부정형성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수필이란 문학은 차를 마시는 것과 같아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경우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표현하여 수필이 자유로운 부정형성의 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짜임새를 가진 문학 장르라는 점’을 은유법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을 환기시켜 준다.

「빠리에 부친 편지」에서,

걸음걸음 파아란 보랏빛 그대의 치맛자락, 똑같은 구두를 신은 여인이 나 같은 모자는 만날 수 없다는 파리, 거기서도 당신의 의상은 한 이채일 것입니다. 파리의 하늘은 변하기 쉽다지요. 여자의 마음 같다고. 그러나 구름이 비치는 것은 물의 표면이지 호수의 깊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날이 흐리면 머리에 빗질 아니하실 것이 걱정되오나, 신록 같은 그 모습은 언제나 새롭습니다.³⁸⁾

피천득의 수필 「빠리에 부친 편지」에서는 한 여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러 색채로서의 회화적 이미지의 비유법을 그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여인의 치맛자락을 ‘파아란 보랏빛’의 표현 기법으로 나타냈다. ‘여자의 마음 같은 파리의 하늘’과, ‘신록 같은 그 모습은 언제나 새롭다’는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38) 피천득, 앞의 책. p.34.

있다. 다시 말해 은유법과 직유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여인의 모습이 신록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3)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

피천득의 수필에서는 과거를 기억하여 회상하는 회상수필이 많다. 회상수필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이야기하다가 현재의 자신의 마음으로 쓰는 이미지 연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의 문체를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나 사물에 관한 보기를 구체적으로 든 다음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현재에 연결 짓는 데에 이미지 연결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정의를 내걸고 그의 관한 구체적인 보기를 든 다음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현재에 연결 짓는 솜씨와도 유사하다³⁹⁾는 피천득의 기법적 특성이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과 결합된 사례는 작품 「인연」, 「눈물」, 「오월」, 「선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품 「인연」은 회상수필로 추억인 꽃의 이미지를 연결한 표현법이다. 이 작품에서는 아사코를 세 가지 꽃의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그녀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게 해 주는 것은 이 세 가지 꽃의 이미지이다. 첫째, 피천득이 처음 미우라 선생 댁에 갔을 때 아사코가 꽃병에 꽂아준 ‘스위트피’로 인해 ‘아사코는 스위트피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둘째, 두 번째 만났을 때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여대 영

39) 이명재, 「피천득 수필의 기법적 특성」, 『한국문학의 다원적 비평』, 작가와비평. 2011. p.236.

문학과 학생이 된 아사코가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 셋째, 결혼을 하고 따로 산다는 아사코의 집을 기어이 찾아가 만났을 때의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의 이미지이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의 아사코에 대한 이미지는 이 세 가지 꽃, 스위트피와 목련꽃 그리고 시든 백합의 비유로 연결되어 그 애뜻함이 시간이 흘러도 독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한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가던 길에 아사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장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결혼한 아사코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었다, 이십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 책 겉장에 있는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⁴⁰⁾

피천득은 어린 아사코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뽕족 지붕, 뽕족 창문, 아사코의 동화 책 겉장에 있는 집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지 연결법의 특성이 보인다. 특히 현재로 돌아온 그는 다음 같은 끝마무리로 멋스런 여운을 남긴다. 이 부분 역시 이미지 연결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

40) 피천득, 앞의 책, p.151.

다.”⁴¹⁾

문학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작가의 표현상 자유는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작가는 그의 의도에 따라 질서를 구축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질서, 그것이 수필의 구성이다.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 속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구성이 필요하다. 정진권이 「수필문학의 구성 고찰」⁴²⁾에서 분석한 피천득의 「인연」과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보면 작가가 얼마나 공을 들여 작품을 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진권은 피천득의 수필 「인연」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현재(회상의 주요 매체인 ‘성심여자대학’에 가고 싶어 함) - 과거(그동안 아사코와 세 번의 만남을 가졌음) - 현재(마지막 만남을 후회하여 아쉬워함)의 시간적 질서 위에 있음을 보인다. 아사코에 대한 인상의 변화도 ‘귀여운 스위트피’에서 ‘성숙한 목련’으로 다시 ‘시든 백합’으로 이동하면서 그리움이 점차 퇴색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든 백합은 수필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아사코와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 역시 ‘운동화, 우산, 뽕족 지붕, 뽕족 창문’ 등 동화적인 것을 선택함으로써 아사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사코와 자신과의 공간적 거리도,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 ‘가벼운 악수’ - ‘절’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인물간의 거리를 통하여 둘 사이의 상황의 변화와 절제된 마음을 표현하는 구성의 솜씨는 누가 보아도 빈틈없이 잘 짜여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은 산문 정신의 근본인 ‘자유로움’을 핵심으로 하고 있거니와, 그 ‘자유’는 작가의 창조정신의 존중에서 우러나온 것인 동시에

41) 피천득, 앞의 책. p.152.

42) 정진권, 「수필문학의 구성 고찰」. 『한국수필문학연구』, 신아출판사, 1996, pp.58-81.

그에 따르는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다.⁴³⁾ 그러므로 작가가 한 편의 수필을 쓴다는 것은, 주제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위하여 자신의 과거의 회상과 체험 그리고 사유, 혹은 정서적 감각 따위를 체재와 연결 지어서 그의 적합한 형식인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기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오월」에서 보면,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 바늘잎도 연한 살결 같이 보드랍다. 스물한 살 나이였던 오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얹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생생한 색이었다.

得了愛情痛苦

失了愛情痛苦

젊어서 죽은 중국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 왔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에 속에 있다.

(중 략)

밝고 순결한 오월은 지금 가고 있다.⁴⁴⁾

피천득의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자 ‘비취가

43) 윤재천, 『수필문학 산책』. 도서출판 이진, 1990, p.36.

44) 피천득, 앞의 책. pp.35-36.

락지'라는 비유는 앞서 설명한 은유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천득은 오월을 '앵두'나 어린 딸기'와 같은 과일, 모란과 같은 꽃이나 '신록'의 이미지를 병치시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킨다. '스물한 살 나이였던 오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에서 피천득 자신의 '스물한 살 나이였던 오월'은, 회고적 시점의 이미지 연결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곧 이어 '득료애정통고(得了愛情痛苦), 실료애정통고(失了愛情痛苦)'라는 젊어서 죽은 시인의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돌아온다. 정열적으로 살다 간 젊은 시인을 회고하며 그는,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고 뇌인다.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다.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피천득은 "밝고 맑고 순결한 오월은 지금 가고 있다."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 끝마무리도 연관 지어서 매력을 더한다. 「오월」의 경우는 '해변가에 얹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져 있는 별장들'과 같이 신선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러는 '전나무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처럼 촉각적 이미지 연결이 두드러져 효과적이다. 해변가의 보트와 별장은 스물한 살 작가의 피서지 경험을 환기시키며, 과거의 시간 속에 자리한 자신의 내면 풍경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4)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

피천득 수필의 특성 가운데 중추를 이루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상의 큰 두 축은 엄마와 딸 서영이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 두 세계는 여성 예찬, 그리고 구원의 여상 이해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요소는 남다른 사랑과 외로움 속에서 겪은 피천득의 개성 형성과정에서 얻어진 값진 특성이다. 말하자면 심리학자 칼 융도 주장하듯이 남성이 지니고 있는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의 예술적 발로로서의 긍정적 성과인 썸이다.⁴⁵⁾ 따라서 피천득의 아니마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피천득의 작품 「엄마」를 살펴보면, 그는 수필 「엄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모성이 강한 여성으로 쓰고 있다. 또한 어머니를 자신의 이상에 가까운 젊고 아름다운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를 ‘엄마’로 호칭하는 것은 삼십 대의 젊은 나이에 자신을 떠나간 엄마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머니에 대한 원초적 기억과 이상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의 여성적 미학으로 이어진다.

피천득 수필에서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표현된 특성을 띠고 있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엄마」, 「서영이」, 「서영이에게」, 「어느 날」, 「서영이와 난영이」, 「인연」, 「유순이」, 「구원의 여상」 등. 이 가운데 특히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모델이 된 청초한 여인으로서의 피천득 모친의 모습은 환상적일 정도이다.⁴⁶⁾ 사실 금아의 동심과 자상한 사랑이나 서정의 멋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표현법의 특성이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와 「서영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작품 「엄마」에서 살펴보면,

엄마가 나의 엄마였던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거문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적이 없고, 거만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45) 이명재, 『한국문학의 다원적 비평』, 작가와비평, 2011, p.238.

46) 이명재, 앞의 책, pp.238-239.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중 략)

삼십 시대에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 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⁴⁷⁾

수필 「엄마」에서, 그는 어머니를 청초한 여성, 모시와 옥양목 같으며, 그리고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과 햇빛 손에 웃는 미소를 통해 엄마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피천득 수필에서 중추를 이루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부드러움의 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여인상으로 실재한 아가페적 사랑인 어머니와 딸이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향하는 사랑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의 사랑의 원점과도 같은 곳에 어머니가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은 미망인으로 살면서 그 생활이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엄마」에서). 또한 그녀는 ‘거짓말 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그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며, 햇빛 속에 웃는 그의 태도 역시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웃음’이라고 하는 수필 「엄마」에서의 고백

47) 피천득, 앞의 책. pp.107-108.

은 결국 그의 사랑의 원천이 어머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계속해서 「엄마」를 살펴보면,

엄마와 나는 숨기 내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방 저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 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⁴⁸⁾

‘나는 몰랐다’가 반복되는 행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피천득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임은 그가 「그날」, 「모시」 등의 작품을 통해 거듭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서영이」에서는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서영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나의 딸이요,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 또 내가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티멘털리즘에 흐르지 않는, 지적인 양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

(중 략)

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 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부분이다.⁴⁹⁾

어머니로 향하는 사랑이 「서영이에게」, 「어느 날」, 「서영이」, 「서영이 대학

48) 피천득, 앞의 책, pp.108-109.

49) 피천득, 앞의 책, p.126.

에 가다」 등의 수필에서 그의 딸 ‘서영이’로 이어져 현재화 되어 있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피천득도 찰스 램에 버금가는 여성 예찬론자이자 사랑 예찬론자임은 그의 모든 수필이 웅변하고 있다. 피천득의 수필은 여성적인 미에 대한 사랑과 예찬이 큰 즐거움을 이루고 있다. 거의 모든 작품마다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서의 특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천득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여성예찬론자가 아니다. 수필 「구원의 여상」을 보면 그가 상징하고 있는 여성과 여성미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은 ‘한 남성이 머리를 눕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때 피천득의 여성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형이다. 즉 비록 여성에 대한 예찬론으로 보일지라도 기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실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피천득은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V.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

이 장에서는 내용 면에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필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색의 표현인 만큼 작가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필은 사실에 바탕을 둔 사실담이라는 점에서 수필이 곧 수필작가 자신의 인격적 나상(裸像)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천득은 자신의 주변을 사랑한 작가이며 또한 문학을 사랑한 작가라 할 수 있다.

피천득의 수필세계에 대해 차주환은, 영문학을 전공한 금아는 그의 수필관에서나 수필작품에서나 다 칼스 램을 중심으로 한 수필의 성격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다⁵⁰⁾는 요지로 말하고 있다.

피천득은 작품 「순례」에서 사상이나 표현 기교에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으나 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정이다. 그 속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적인 슬픔, 상실, 고통을 달래주는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어둡고 어지러운 한국근대사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문학은 낮은 사물에 매력을 부여하여 나를 풍유하게 하여준다. 구름과 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눈, 비, 바람의 가지가지의 자연현상을 허술하게 놓쳐 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준다.”⁵¹⁾고 한 피천득의 수필의 세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50)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세계」, 앞의 책, pp.170-171 참조.

51) 피천득, 앞의 책, pp.229, 233.

1)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

피천득의 수필은 일상에서 사소한 인연과 자잘한 경험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피천득은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고 실제로 수필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한 작품에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 「멋」, 「비원」, 「순례」, 「만년」, 「송년」 등이 있다.

그가 수필에서 다룬 제재는 인생을 멋있게 살기를 원하고 또 비교적 멋있게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는 피천득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그가 좋아하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 그러나 피천득 수필이 사소한 인연과 자잘한 경험들을 이야기로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고 사소한 삶의 조각들이 조화를 이루어 독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공감을 주게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영조는, 수필은 한정된 분량 속에 상념의 정제와 압축, 문장 표현의 능숙함, 치밀하고도 짜임새 있는 구상,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는 문장력, 짙막한 가운데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 감각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⁵²⁾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러면서도 아름다움과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피천득은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수필’들을 우리들 앞에 써 내어놓았다. 피천득은 그의 작품 「수필」에서 ‘수필은 청춘의 글이 아니요, 서른 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⁵³⁾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쓴 글이라기보다는 지성이 내포된 작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2) 이영조, 「한국 수필론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137.

53) 피천득, 앞의 책, p.17.

피천득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차근차근 읽어 가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 아름다움을 느끼며 생활을 사랑하는 눈길이 선명하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소박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일상생활의 멋진 일상에 대해서 작은 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사랑한다’ ‘~하고 싶다’ ‘좋아한다’ 등으로 열거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드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한 폰드 반을 사 주고 싶다.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 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⁵⁴⁾

‘~을 사랑한다.’ ‘~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5만 원이 있으면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아직 수중에 돈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한 5만 원이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것은 몸이 편치 않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쉴 수 있고, 딸에게는 바지를, 아내에게 털실을 사 주고 싶다고 한다. 또한 적조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고, 아내는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그리고 있다. 이러한 소망들은 극히 소박하여 우리에게 흐뭇한 공감을 갖게 한다. 수필이 작가의 삶의 체험이고 사실담이라고 할 때, 피천득 자신의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즐거워하는 그의 욕심 없는 삶이 글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54) 피천득, 앞의 책, p.211.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 댄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칼을 만지를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 재를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 보기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⁵⁵⁾

여기에서는 ‘~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어가면서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다. 먼저 촉각적인 경험으로 잔디 밟기와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하고, 화롯불 재를 만지기 좋아하고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기 좋아한다.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험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하고, 거기에 더하여 웃는 얼굴을 더 좋아하고, 그뿐 아니라 피천득은 수수한 얼굴의 웃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서영이 엄마의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엄마의 모습은, 어쩌면 어려서 돌아가신 자신의 잠재된 엄마의 웃는 모습으로 연계된 얼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사 대신으로 웃는 여자의 얼굴은 다정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피천득은,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였다.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 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

55) 피천득, 앞의 책, pp.211-212. (밑줄 -인용자)

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⁵⁶⁾

나의 생활 속의 모든 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고, 욕망 없이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고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딸 서영이와 함께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고 싶다고 하며 글을 마친다.

이 작품에서는, 평범한 사람 누구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소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딸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걷고 싶다고 한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피천득의 아름다운 ‘멋’이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피천득의 마음에서는 실은 작은 일상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랑이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피천득의 작은 일상에 대한 시선은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금아 피천득의 아름답고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가 나타나 있는 작품 「멋」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의 사람살이란 대개 평범한 사람들인 소시민에게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 힘든 삶의 각박함과 궁핍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제약으로 다가온다. 사실 평범한 삶 그 자체로 살아가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다. 이러할 때 작고 아름다운 것에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주어진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또한 기쁨과 아름다움에 충만해지기 위한 평범한 사람의 생활철학이 된다. 이러한 생활철학이 피천득의 작품 ‘멋’에서 나타나고 있다.

56) 피천득, 앞의 책, p.214.

멋있는 사람은 가난하여도 궁상맞지 않고 인색하지 않다. 폐포파립을 걸치더라도 마음이 행운유수와 같으면 곧 멋이다.

멋은 허심하고 관대하며 여백의 미가 있다. 받는 것이 멋이 아니라, 선뜻 내어주는 것이 멋이다. 천금을 주고도 중국 소저小姐의 정조를 범하지 아니한 통사通事 홍순언洪淳彦은 멋있는 사나이였다.

논개와 계월향은 멋진 여성이었다. 자유와 민족을 위하여 청춘을 버리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황진이도 멋있는 여자다. 누구나 큰 것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다. 인생은 오히려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였다.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바른손으로 물동이 전면에서 흐르는 물을 휘뿌리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젊은 여인이 저편 지름길로부터 나오더니 따리를 머리에 얹으며 물동이를 받아 이려 하였다. 물동이를 인 먼저 여인은 마중 나온 여인의 머리에 놓인 따리를 얼른 집어던지고 다시 손으로 동이에 흐르는 물을 쓸며 뒤도 아니 돌아보고 지름길로 걸어 들어갔다. 마중 나왔던 여자는 웃으면서 따리를 집어 들고 뒤를 따랐다. 이 두 여인은 동서가 아니면 올케였을 것이다. 그들은 비너스와 사이키보다 멋이 있었다. 멋이 있는 사람은 멋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 때문에 각박한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광경을 바라다보고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⁵⁷⁾

피천득은 “멋있는 사람은 가난하여도 궁상맞지 않고 인색하지 않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선뜻 내어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 피천득에 있어 인생을 살 만한 것이게 하는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선뜻 내어주는 것이 멋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주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멋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필 「멋」의 마지막 대목에서, 젊은 여인 둘이서 서로 물동이를 이고 가겠다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피천득은 보게 된다. 이 광경을 바라다보던 그는

57) 피천득, 앞의 책, pp.216-217.

이런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 때문에 각박한 세상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살 만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많은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무거운 물동이를 내어 주지 않고 끝까지 이고 가는 것이 배푼의 행위, 내 것을 선뜻 내어 주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남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이 피천득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내 것을 선뜻 내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위로, 그러한 멋은 거듭 강조되어 마땅하다. 이때 내어 주는 사람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동이를 인 여인을 마중 나온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멋이 있는 자리에서만, 선뜻 내어 주는 행위가 멋있는 행위가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칫 자기탐닉이나 자기만족 또는 이기적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무는, “선뜻 내어 주는 행위가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 만한 것이 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내어 줌이 곧 자기를 허무는 힘든 일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허물어 내는 쉽지 않은 일이 곁들여 있지 않을 때, 내어 주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뜻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자기만족적 자기탐닉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⁵⁸⁾라고 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큰 것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다. 인생은 오히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⁹⁾라는 금아의 말에서 그의 작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천득 자신의 인생관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피천득은 무슨 거창

58) 김영무,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멋의 시」,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65.

59) 피천득, 「멋」, 앞의 책. p.216.

한 주의나 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피천득 수필은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많다. 일상 속에서 관찰을 통해 경험하게 된 체험들을 내면으로 승화되어 새로움을 발견하고, 이를 그의 개성적 관점으로 독특성 있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피천득 수필의 특성은 일상이 함부로 조각조각으로 나뉘지 않고, 수필이 예리하게 삶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 김상배는 피천득의 수필은 체험을 통한 인생 관조의 격조 높은 글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평가라 한다.⁶⁰⁾

체험을 통한 인생 관조 특히 자연 관찰과 관련하여 피꼬리를 제재로 한 「비원」에 대해 살펴보자.

비 오는 오월 어느 날 비원에 갔었다. 아침부터 비가오고 주말도 아니어서 사람이 없었다. 비원은 서울 한북관에 있으면서 숲이 울창하며 산속 같은 데가 있다.

빗방울이 얇전히 떨어지는 반도지 위에 작고 둥근 무늬가 쉴 새 없이 퍼지고 있었다. 그 푸른 물 위에 모네의 그림 <수련>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연잎이 평화롭게 떠 있었다.

피꼬리 소리가 들린다. 경쾌한 울음이 연달아 들려온다.

피꼬리 소리는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서울 출생인 내가 피꼬리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충청도 광시라는 시골에서였다. 내가 서울로 돌아오던 날 아침 ‘그 아이’는 신작로까지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꼬리가 울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작은 신문지 봉투를 주었다. 그 봉지 속에는 물기 있는 앵두가 가득 들어 있었다.

돈화문까지 나오다가 피꼬리 소리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나는 반도지

60) 김상배, 「피천득의 수필세계」,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3권, 1989, p.324.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기다리기도 전에 저 리리 폰스보다 옛되고 더 명쾌한 피꼬리 소리가 들려왔다. 리리 폰스는 두 번 앙코르에 응해주고는 그 다음에는 절을 몇 번씩 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나의 피꼬리는 연달아 울었다. 비는 내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란 피꼬리는 계속 울었다.

나는 피꼬리 소리를 스무 번이나 더 들었다.⁶¹⁾

피천득은 작품 「비원」에서 ‘은퇴도 하였으니 시골 가서 새소리나 들으며 살 까도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피천득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숲이 울창하며 산속 같은 데가 있는 비원에서, 피꼬리 소리를 스무 번이나 더 듣는다. 그러한 그의 행위는 결코 평범한 일상이라 할 수 없어 보인다. 시골로 가서 새소리나 들으며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비원에 가서 피꼬리 소리를 듣는다. 복잡한 현실의 제약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의 극복임과 아울러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한 까닭에 다음과 같은 문맥은 소중한 사색의 증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는 그 진가를 감상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비원뿐이라 유럽의 어느 작은 도시, 분수가 있는 광장, 비둘기들, 무슨 애비뉴라는 고운 이름이 붙은 길, 꽃에 파묻힌 집들, 그것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순간 다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한 구석에 간직한 나의 소유물이다.

주인이 일 년에 한 번 오거나 하는 별장은 그 고요함을 별장지기가 향유하고, 피꼬리 우는 푸른 숲은 산지기 영감만이 즐기기도 한다. 내가 어찌다 능참봉陵參奉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런 여유에서 오는 것이다.⁶²⁾

61) 피천득, 앞의 책, pp.267-268.

62) 피천득, 앞의 책, p.269.

피천득은, ‘미는 그 진가를 감상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부자의 집 담벼락에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감상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 따라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미는 그 진가를 감상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소유한다.’고 한 피천득의 자연 관찰과 인생 관조는 격조 있는 사색으로 이어져서 일상의 자잘함이 금싸라기처럼 빛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피천득은 이와 같이 작품 「비원」에서 자연을 관찰하여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 사색을 통한 인생 관조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 관조의 영성 수필이라 할 수 있다.

「순례」에서 피천득은 “사상이나 표현 기교에는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으나 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정이다. 그 속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연적인 슬픔 상실 고통’을 달래 주는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다.”고 하여 그는 사소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인 ‘슬픔 상실 고통’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한다. 피천득의 수필은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흩어져 굴러다니지 않는다. 그 자잘한 부분들이 「순례」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부분으로 표현되는지 다음에서 살펴보자.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 경험의 표현이다.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농도가 진하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눈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면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 침통한 비극을 체험할 수도 있다. 문학은 작가의 인격을 반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을 통하여 숭고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지 못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너의 친구다. 같은 높은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

고 순진한 정서를 같이할 수도 있다. 외우畏友 치옹痴翁의 말같이 상실했던 자기의 본성을 되찾기도 한다. 고전을 읽는 그동안이라도 상실했던 자기의 본성을 되찾기도 한다. 고전을 읽는 그동안이라도 저속한 현실에서 해탈되어 승화된 감정을 갖게 된다.⁶³⁾

피천득은 ‘문학은 금싸라기를 고르듯이 선택된 생활 경험이고,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그 내용의 농도가 진하다.’고 한다. 피천득이 수필화한 일상의 경험은 선택된 경험으로 결코 소박한 의미의 일상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게 한다. 선택된 일상이 압축되어 농도가 진한 일상의 삶을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되게 하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만년」과 「송년」에 대해 살펴보자.

피천득은 「만년」에서 다음과 같이 그 자신의 생애가 ‘사랑’으로 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려서 잃었으나 기억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멀리 있어도 자주 편지를 해주는 아들딸이 있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내 온 몇몇 친구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쫓아와 반기는 제자들이 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비록 오막살이라도 누추하지 않다는 옛 글이 있다. 늙은 아내 탕을 하지만 기름을 때는 아파트로 이사 온 것에 넘치는 노릇이다.

(중 략)

하늘에 별을 쳐다볼 때 내세가 있었으면 해 보기도 한다. 신기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훗날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하고 갔구나’ 하고 한숨지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참 염치없는 사람이다.⁶⁴⁾

63) 피천득, 앞의 책, p.259.

64) 피천득, 앞의 책, p.306.

마지막으로 「송년」에서, 피천득은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는 반세기를 헛되이 보내었다. 그것도 호탕하게 낭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일주일, 한해 한해를 젖은 짚단을 태우듯 살았다.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학구에 충실치도 못했다. 가끔 한숨을 쉬면서 뒷골목을 걸어오며 늙었다.⁶⁵⁾

피천득은 민족과 사회를 위한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상주의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작고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한평생 삶을 조용하게 살아 내었다. 그는 뜨겁지는 않으나 오래 지속되는 불씨 하나 간직하며 살아 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삶의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사랑하였다. 그러한 피천득의 삶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수필 「만년」의 말미에 “훗날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하고 갔구나’ 하고 한숨지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염치없는 사람이다.’라고 끝을 맺는다. 수필 「송년」에서 “나는 반세기를 헛되이 보내었다. 그리고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보지도 못하고, 가끔 한숨을 쉬면서 뒷골목을 걸어오며 늙었다.”로 끝난다. 그는 자신의 글로써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 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숨기고 감추는 작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피천득의 작품 「나의 사랑하는 생활」, 「멋」, 「비원」, 「순례」, 「만년」, 「송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속에 드러난 그의 문학세계에서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65) 피천득, 앞의 책, p.302.

2)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

피천득의 수필작품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과 인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피천득 수필의 가치는 사소한 인연과 일상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들을 인생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연결시켜 독자에게 공감을 준다는 점에 있다. 이런 작은 조각들은 ‘어떤 인물’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되어 있다.

피천득은 수필에서 인물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나는 위대한 인물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와 유사성이 없기 때문인가 보다”, 「찰스 램」 서두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고 소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피천득의 태도는 작품에서의 인물을 보는 인간미의 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작품 중 인물에 대한 작품들은 「찰스 램」, 「셰익스피어」, 「로버트 프로스트」, 「아인슈타인」, 「도연명」, 「도산」, 「도산 선생께」, 「여심」, 「치용」, 「어느 학자의 초상」 등을 들 수 있다.

피천득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인물들 가운데서 '찰스 램',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피천득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인물들인 '도산', '여심', '춘원' 등에 대한 수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천득과 ‘찰스 램’의 공통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피천득은 수필 「찰스 램」을 써서 인간 ‘찰스 램’과 그의 문학을 간결하고도 생동감 있게 써 내었다. 자신의 램 수필에 대한 애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피천득의 「찰스 램」에 나타난 찰스 램은 어떤 사람인가?

피천득은 수필 「찰스 램」에서 ‘나는 위대한 인물들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와 유사성이 없기 때문인가 보다. 나는 그저 평범하되 정서가 섬세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련한 애수와 미소 같은 유머를 지닌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전제하며 찰스 램을 이야기하고 있다. 피천득은 유머에 대한 수필 「유머의 기능」에서 ‘위트는 남을 보고 웃지만 유머는 남과 같이 웃는다. 서로 같이 웃을 때 우리는 친근감을 갖게 된다. 유머는 다정하고 온화하며 지친 마음에 위안을 준다. 유머는 가엾은 인간의 행동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머에는 애수가 깃드는 것이다.’⁶⁶⁾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 「찰스 램」을 주목해서 읽어보자.

피천득은 ‘램’의 아름다운 인간성에 마음이 끌리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하려고 하였다. 찰스 램은 술을 잘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친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역경에서도 인생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평범한 동인도회사 회계 사무원이었다. 겸손하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기 아이는 없으면서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 굴뚝 청소부들도 사랑하였다. 그들이 웃으면 램도 같이 웃었다. ‘작은 것’을 사랑하는 소박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들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피천득은 말하고 있다.

또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피천득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피천득이 자신의 작품의 인물을 평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천득의 작품에서 위인이나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 내기는 했지만,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물들의 업적이나 우러러 볼만한 위대함이 아니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위대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소박하고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찰스 램에서 피천득은 「엘리아 수필」은 다름 아닌 ‘작은 학교, 자기 회사,

66) 피천득, 앞의 책, p.300.

극장, 배우들, 뒷골목 술집, 책사, 이런 것들의 작은 얘기를 끝없는 로맨스로 엮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 자신도 실제로 작은 얘기에 대한 호의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피천득은 작품 「도산」에서 상해로 유학을 간 동기를 도산 안창호를 만나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는 도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도산을 존경한 이유 역시 도산이 위풍당당한 위대한 혁명가였다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높은 존재로, 그의 높은 인격과 인간적으로 너무 인자하고 따뜻함, 인간미 때문이었다, 라고 쓰고 있다. 작품 「도산」에 대하여 살펴보자.

스피노자의 전기를 어떤 세속적인 학자가 썼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비난은 옳졸한 것이다. 마리아는 창녀의 기도를 측은히 여기고 충무공은 소인들의 참배를 허용하시리니, 내 감히 도산을 스승이라 추모할 수 있을까 한다.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은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에게 반사적 광영을 갖게 하는 이름들도 있다. 그러나 높은 인격을 나에게 보여 주신 분은 도산 선생이시다.

내가 상해로 유학을 간 동기의 하나는 그분을 뵈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었다.

(중 략)

그는 숭고하다기에는 너무나 친근감을 주고 근엄하기에는 너무 인자하였다. 그의 인격은 위엄으로 나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나를 품안에 안아버렸다. 연단에 서신 우아한 그의 풍채, 우렁차면서 날카롭지 않고 청아하면서 부드러운 그 음성, 거기에 자연스러운 몸가짐, 선생은 타고난 웅변가였다.

(중 략)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수백을 헤아릴 텐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같이 자기만을 대하여 주시는 것같이 느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중 략)

1932년 6월 그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국으로 압송된 후에도 그의 작은 화단에는 그가 가꾸던 여름 꽃들이 주인의 비운도 모르고 피어 있었다.

내가 병이 나서 누웠을 때 선생은 나를 실어다 상해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겨울 아침 일찍이 문병을 오시고는 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 장례에도 참례치 못하였다. 일경의 감시가 무서웠던 것이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보다도 부끄러운 일이다.⁶⁷⁾

작품 「도산」에서 병이 나서 누웠을 때 도산이 자신을 실어다 상해요양원에 입원시키고, 겨울 아침 일찍이 문병을 오고는 했던 자상한 인간 도산을 늘 기억하면서도, 선생이 순국하셨을 때 일경의 감시가 무서웠던 피천득은 장례에 참례도 못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보다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한다. 피천득은 도산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수필을 통해 고백하며 도산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한다. 이어 작품 「도산 선생께」에서, 피천득은 도산의 영전에 또다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선생께서는 나라에 재목이 될 나무들을 40년간 심고 가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신 나무들은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순국하신 후 아깝게도 일제 탄압에 대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끝끝내 견디어 낸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곳곳이 견디어 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뭇나무감박에 되지 못하는 것은 치욕을 겪으면서 명맥을 부지했습니다.

선생의 제자답지 못한 저, 그래도 선생님을 사모합니다. 선생은 민족적 지도자이시기 이전에 평범하고 진실한 어른이셨습니다.

(중 략)

선생은 상해 망명시절에 작은 뜰에 꽃을 심으시고 이웃 아이들에게 장

67) 피천득, 위의 책, pp.160-163.

난감을 사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연스러운 인간미를 찬양합니다. 거센 풍우에 깎여도 엄연히 진실을 지키신 도산, 앞으로 몇 백 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당신을 바라보고 인내와 용기, 진실을 배울 것입니다.⁶⁸⁾

피천득은 도산의 영전에 위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어서 도산 선생의 자연스러운 인간미를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자도자로서의 도산의 진실은 젊은이들의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자신의 생각을 나무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여심」에서, 피천득은 상해의 한 대학에서 유학 시절 만나게 된 연상의 친구였던 여심(주요섭)⁶⁹⁾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인물 여심의 인품과 인정미에 대해 일관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형은 상해 대학을 마친 후 중국인 국적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스탠퍼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신동아》를 편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하고 방을 얻어 같이 살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형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고 나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운 아침 물을 길러 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나더러 불을 지피라고 그랬습니다.⁷⁰⁾

귀국하여 같이 지냈던 일까지 그는 곁들여 인품과 인정미를 되새기는 방향으로 엮어져 있다. 추운 겨울 아침 ‘여심’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을 맡으면서 피천득에게는 난로에 불을 지피게 한다. 수필 「여심」에서 피천득은 그를 가리켜 “정에 치우치는, 몰인정을 가장 미워하는” 따뜻한 인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는 피천득에게 있어 이상적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을 만큼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다.

68) 피천득, 앞의 책, pp.164-165.

69) 임영천, 『수필 문학의 이해』, 빛나리, 2012, p.156 각주 73) 참조.

70) 피천득, 앞의 책. p.192.

「춘원」에서, 피천득은 과거에도 도산 선생을 위시하여 학덕이 높은 스승을 모실 수 있는 행운을 가졌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한 시간으로나 정으로나 춘원과 가장 인연이 깊다고 한 피천득은 3년 이상이나 한 집에 살았을 정도로 춘원과 인연이 깊었는데 역시 춘원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은 민족적인 과오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은 춘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춘원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그는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략)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가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게 여기게 태어났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했다. 그는 남과 불화하고는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았다. 그는 정직하였다. (중략) 그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였다.⁷¹⁾

3년 이상이나 한 집에 살았을 정도로 춘원과의 인간관계가 깊었는데 역시 춘원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교태가 없는 인간성을 절실하게 이해하면서 춘원이 신부나 승려가 될 사람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을 좋아하였다. 여생을 산에서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아깝게도 한때 과오를 범하였었다. (중략)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무엇하리. 그의 인간미, 그의 문학적 업적만을 길이 찬양하기로 하자.”는 말로 춘원을 추도하였다.

이광수의 큰 과오에 대해 피천득이 작품 「춘원」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춘원이 일생을 산에서 보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착한 성품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휘말릴 수밖에 없었음을 변론하

71) 피천득, 앞의 책. pp.166-167.

는 듯하다. 여기서 피천득이 역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성품이나 인간미에 대해,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에서도 인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피천득이 이해한 아인슈타인의 신은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었다. “그의 신은 개인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이다.”라고 「아인슈타인」에서 말하고 있다.

“그의 인간미 있는 일화가 있다. 한 소녀가 산수 숙제를 못하고 애를 쓰다가 그 동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사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촌 영감 같은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오라고 하셨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곧 뛰어가서 사과를 드렸더니, 아인슈타인의 대답이

“내가 아기한테서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는 한 성령을 믿는다. 그는 말하기를,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한 성령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우리가 겸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의 신은 개인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이다.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다.

유순한 눈이 크고, 길게 뺀 백발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험 옷을 걸치고, 넥타이를 매는 적이 별로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기를 좋아하였다.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부조리를 극력 반대하였다. 자기의 유해를 화장하여 그 재를 바람에 날려 달라고 하였다. 뉴턴 이래의 최대의 과학자라는 칭송이 아니라도 그는 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순수이성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칸트의 생애를 흠모할 수 있듯이 상대성 이론을 모르고도 아인슈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의 아인슈타인은 우리 모두의 아인슈타인이기도 하다.⁷²⁾

72) 피천득, 앞의 책, pp.206-208.

피천득은 수필 「아인슈타인」에서 역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피천득이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간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피천득은 그의 인간미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 소녀의 산수 숙제를 도와주며 ‘내가 아기한테서 배운 게 더 많다.’고 한 그의 대답은 아인슈타인의 인간미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과학과 물리학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매우 소박하고 정겨운 일화로 채워져 있다. 그 소박함과 정겨움을 지향하는 피천득의 인간관을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아인슈타인)는 성령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고 피천득은 전한다.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한 성령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우리가 겸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의 신은 개인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이다.⁷³⁾

3)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

피천득은 수필 「서영이」에서 스스로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요, 하나는 나의 딸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엄마와 딸이라는 대상은 실제로 피천득의 작품에서 그의 애정의 대상의 큰 두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축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딸 서영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 어머니에 대한

73) 피천득, 위의 책, p.207.

그리움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두 세계를 통하여 여성에 찬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두를 종합하여 ‘구원의 여상’을 세우게 된다.⁷⁴⁾ 먼저 엄마와 딸에 대한 피천득의 작품에 나타난 영원한 여성,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보이는 다른 작품들도 살펴봄으로써 피천득 작품의 여성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피천득의 작품 「엄마」를 먼저 살펴보자. 피천득은 수필 「엄마」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모성이 강한 여성으로 써냈다. 또한 자신의 이상에 가까운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의 표본으로 드러난다. 그는 어머니를 ‘엄마’로 호칭한 것은 삼십대에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한 유년시절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시절의 한계에서 자신을 연결시켜 써내려가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수필집 『인연』의 맨 처음 헌사(獻辭)에서부터 ‘엄마께’란 어구로 시작되고 있다. 피천득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짝막하게 언급하는데,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따뜻한 인품과 애정(모성)에 대해 여러 차례 회상을 하였다.

그의 작품 「엄마」에서,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시화에 능하고 거문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비단이나 고운 색깔을 몸에 대신 일이

74) 안경란, 앞의 논문, p.28 참조.

없었다. 분을 바르신 일도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엄마는 죽은 아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여름이면 모시, 겨울이면 옥양목, 그의 생활은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
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황진이처럼 그는 죽은 남편을 위하
여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폭포 같은 마음을 지닌 채 호수같
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바다로 가고야 말았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나
는 그 후 외지로 돌아다니느라고 엄마의 무덤까지 잃어버렸다. 다행히 그
의 사진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삼십 시대에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यो,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
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
제 와서는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
고 또 나의 간절한 희망이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⁷⁵⁾

수필 「엄마」에서, 피천득은 어머니를 칭찬한 여성, 모시와 옥양목 같으며,
그리고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과 햇빛 속에 웃는 미소를 통해 엄마에 대한 따
뜻한 애정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피천득에 있어서 그
의 일상 어느 곳이든 사랑의 눈길이 닿지 않았을까마는, 그러나 자신의 어머
니를 향한 사랑은 더욱 강하였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의 원점과 같아
서 피천득의 내면 깊은 곳에 항상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애정은 수필 「금반지」에서, 내조의 공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로 지나가고 마는 듯하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그의 딸인 서영이에게로 전이되어진 것 같다.

이에 대해 차주환은, “심리학 내지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피
천득의 모친과 딸에의 경도(傾倒)에 대해 반드시 어떠한 연관이 지어져서 설

75) 피천득, 앞의 책. pp.108-109.

명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여겨지기까지 한다.”⁷⁶⁾고 하였다.

피천득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하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라고 한다. 또한 “그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 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피천득은 자신의 사랑의 원천은 곧 어머니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배는, 피천득이 그의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상실의 심리는 피천득에게 있어 과거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로 환기된다.⁷⁷⁾고 하였다.

작품의 말미에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다. 여기서 피천득은 애인도, 아내도, 그리고 딸 서영이도 모두 엄마와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거기에 그는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 피천득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사랑의 원천과 같아서 내면의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 「서영이」에 대해 살펴보자.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서영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나의 딸이요,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터멘털리즘에 흐르지 않는, 지적인 양 뿜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량한 소녀

76)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세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172.

77) 김상배, 「피천득의 수필세계」, 국문학논집 13, 단국대학교, 1989. p.327.

다.

버릇이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술 마시느라고 없앤 시간, 바둑 두느라고 없앤 시간, 돈을 버느라고 없앤 시간, 나는 모든 시간을 서영이와 이야기 하느라고 보냈다. 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 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부분이다.⁷⁸⁾

피천득은 작품 「서영이」에서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서영’이라고 한다. 그것도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보내 주신 선물’이라 한다. 그의 두 여성은 자신의 엄마와 그리고 딸 서영이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딸 서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피천득의 작품 「서영이」는 그의 수필 중에서도 뚜렷한 위상을 가진 것 같다. “철부지 때 품었던 강렬한 모친에의 애정과 흠모로 가득 찬 상념이 자신의 성장과 함께 더욱 미화되었다가, 서영이의 탄생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구상화 되어서 보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⁷⁹⁾고 차주환은 평하였다.

피천득의 일상에서의 연민과 사랑의 눈길이 어느 곳 닿지 않는 데가 없다. 그 사랑의 눈길 가운데에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랑의 원점과도 같은 그곳에는 어머니가 항상 임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은 미망인으로 살면서 그 생활이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엄마」). 또한 그녀는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 온 것은 그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며, 햇빛 속에 웃는 그의 태도 역시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웃음이

78) 피천득, 앞의 책. p.126.

79) 차주환, 앞의 책, p.173.

라고 하는 수필 「엄마」에서의 고백은 결국 그의 사랑의 원천이 어머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김상배에 의하면, 피천득은 그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상실의 심리가 그에게 있어 과거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로 환기된다⁸⁰⁾고 한다.

피천득에 있어 서영이는 딸이요, 친구이며, 존경하는 여성이다. 서영이와 지낸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 아름답고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부분이라고 고백한다(「서영이」). 이 장 서두에서 밝힌바,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 딸이라는 대상은 사랑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여성예찬에 그리고 ‘구원의 여상’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여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피천득에게 있어 두 여성인 ‘엄마와 서영이’ 그리고 ‘난영이’까지로 이어지고 있다.

작품 「엄마」에서 살펴보면,

엄마와 나는 숨기 내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 방 저 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 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중 략)

한 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 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행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 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린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 눈을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다. 왜 엄마가 우는지 나는 몰랐다.⁸¹⁾

80) 김상배, 「피천득의 수필세계」.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국문학논집13』. p.327.

81) 피천득, 앞의 책, pp.108-109.

피천득은 엄마와 숨기내기를 하는데, 나는 금방 엄마를 찾아내는데 다락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엄마는 이 방 저 방 찾아다니기만 할 뿐 찾지 못하는지 그는 모른다고 한다. 또 한 번 글방을 몰래 도망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게 되었다. 자다가 눈을 뜨니 또 엄마는 자신의 종아리를 만지며 울고 있었다. 피천득은 그런 엄마를 보며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다고 한다. 피천득은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며 엄마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다. 자애롭고 따스한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몰랐다’가 반복되는 행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피천득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임은 그가 「그날」, 「모시」 등의 작품을 통해 거듭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그러한 어머니로 향하는 사랑이 「서영이에게」, 「어느 날」, 「서영이」, 「서영이 대학에 가다」 등의 수필에서 그의 딸 ‘서영이’로 이어져 현재화 되어 있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⁸²⁾ 이상 작품 「엄마」와 그리고 「서영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서영이와 난영이」를 살펴보자. 피천득은 「엄마」에서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작품 「서영이와 난영이」에서, 그는 그렇게 자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엄마가 되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했던 어린 피천득이 되어서 서영이를 돌보는 엄마가 된다. 미국에 가서도 그는 서영이를 위해 서양 인형을 사서 난영이라고 한국 이름을 붙여주고 서영이의 동생처럼 여긴다. 그 후 서영이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피천득은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나는 난영이를 보살피 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떠나간 서영이의 흔적인 난영이를 보살핀다는 이야기다. 이는 바로 서영이를 대신해 난영이의 엄마 노릇을 하는 피

82) 김상배, 앞의 책, pp.327-328.

천득의 모습을 작품 「서영이와 난영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아빠입니다. 지금은 늙은 아빠입니다. 엄마 노릇을 해 보지 못한 것이 언제나 서운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젓먹이 아기를 가진 젊고 예쁜 엄마들이 부럽습니다.....나는 젓 먹는 아기를 바라다볼 때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 략)

내가 우리 딸에게 사다 준 인형이 있습니다. 돌을 바라다보는 아기만한 인형입니다.....인형은 누이면 눈을 감고 일으키면 자다가도 금방 눈을 뜹니다. 배를 누르면 읍니다.

(중 략)

서영이를 떠나보내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나는 난영이를 보살피 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낮을 씻겨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욕을 시키고 머리에 빗질도 하여 줍니다. 여름이면 얇은 옷, 겨울이면 털옷을 갈아 입혀 줍니다. 데리고 놀지는 아니하지만 음악은 들려줍니다. 여름이면 일찍 재웁니다. 어찌다 내가 늦게까지 무엇을 하느라고 난영이를 재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난영이는 앓은 채 뜬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참 미안합니다. 내 곁에서 자는 것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난영이 얼굴에는 아무 불안이 없습니다. 자는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젊은 엄마들이 부러운 나는 난영이 엄마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⁸³⁾

피천득은 자신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젊은 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엄마의 보살핌을 많은 시간동안 받지 못한 그는 또한 어린 아들인 피천득을 보살피며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을 엄마를 그리워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피천득은 수필 「서영이와 난영이」에서 젓먹이 아기를 가진 젊고 예쁜 엄마들이 부럽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기의 엄마같이 뽐내기 좋은 지위는 없을 거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젊고 예쁜 엄마의 역을 대신하여 꿈꾸면서 엄마노릇

83) 피천득, 앞의 책, pp.139-143.

을 한다. 그는 자신의 엄마를 다시 살려내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젊고 예쁜 엄마까지도 함께 살고 있다.

정정호는, 서영이는 물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어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서영이에게 잘해 주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부족한 엄마 사랑을 채우는 일이기도 하다.⁸⁴⁾ 그리고 서영이를 돌봄으로써 부모 사랑을 자신이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자신의 부모들까지 돌보게 되는 대속(代贖)까지 수행하며 효도를 한다. 그는 엄마와 서영이를 연결시킴으로써 엄마의 아가(금아)로서 아가(서영)의 아빠로서 인연의 윤리적 책임을 완수한다.⁸⁵⁾ 고 하였다.

피천득은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는데 엄마와 딸이라고 한다. 특히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보내 준 귀한 선물이라 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마와 딸 서영이는 지배적인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와 딸을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역시 피천득이 생각하는 여인상은 완벽에 가까운 엄마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여성 예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미」, 「빠리에 부친 편지」, 「가든파티」, 「보스톤 심포니」, 「인연」, 「유순이」 등이다.

피천득의 수필 「여성의 미」에 드러난 ‘여성의 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들이 얼굴을 위하여 바치는 돈과 시간과 정성은 민망할 정도로 막대하다. 칠하고 바르고 문지르고 매일 화장을 한다. 하기가 돋보이겠다는

84) 정정호, 「인연」, 「기억」, 「여림」, 「돌봄」의 생태학.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p.112.

85) 정정호, 앞의 책, p.117.

이 수단은 죄 없는 허위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젊은 얼굴이라면 순색 그대로가 좋다. 찬물로 세수를 한 젊은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중략)

여성의 미는 생생한 생명력에서 온다. 맑고 시원한 눈, 낭랑한 음성, 처녀다운 처녀 같은 가벼운 걸음걸이, 민활한 일숨씨, 생에 대한 희망과 환희, 건강한 여인이 발산하는, 특히 젊은 여인이 풍기는 싱싱한 맛,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윤기, 분석할 수 없는 생의 약동, 이런 것들이 여성의 미를 구성한다.

(중략)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라는 요염하고 매혹적인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는 건전한 미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나라를 기울여뜨리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였다. 참다운 여성의 미는 이른 봄 같은 맑고 맑은 생명력에서 오는 것이다.⁸⁶⁾

피천득은 생명력을 가진 젊은 여성을 철저하리만큼 예찬한다. 삼십 시대에 자신의 곁을 떠난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그의 여성의 표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예찬이라 해도 모든 여성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예술품 같은 분별없는 여성예찬이 아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목련꽃 같던 아사코”, “전쟁 중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 같이 떠나기를 청했으나 갈 수 없다고 말하던 맑은 눈의 유순이”, “넓은 입술, 굽이치는 갈색머리의 허버드 대학 학생”, 파리로 떠난 신록 같은 여인, 이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여성들이었다.

사실적으로 그의 예찬을 받을 만큼 합당한 여성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치’나 ‘파운드’로 여성의 미가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젊은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여성의 미’라고 해서 젊음을 여성미의 첫째 조건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미의 요소들을 나열해 보여주

86) 피천득, 앞의 책, pp.44-46.

고 있다.

다음은 맑은 눈의 「유순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상해사변 때의 일이다. 피천득은 총 소리, 대포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유순이 근무하는 요양원으로 달려간다. 그녀를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피천득이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교외의 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 요양원에서 깨끗하게 생긴 간호부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다. 그녀는 피천득에게 성경도 빌려주고 타고르의 시도 읽어주곤 했다. 잠시 외출을 나갔던 그는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다시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유순이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시가전이 벌어진 시내를 헤치고 겨우 도착한 그에게, 그녀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들을 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위험한 곳을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나를 자기 일하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총소리, 대포소리가 연달아 들려온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들을 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바라다보았다.

상해사변 때문에 귀국한 지 얼마 후였다. 춘원이 『흙』의 여주인공 이름을 얼른 작성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가끔 그를 생각하고 ‘유순이’라고 지어드렸다. 지금 살아 있는지 가끔 그를 생각할 때가 있다.⁸⁷⁾

피천득은 귀국 후 유순이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춘원 이광수를

87) 피천득, 앞의 책, pp.158-159.

만나 『흙』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유순이’라고 지어주게 된다. 돌봄의 사랑을 실천한 유순이는 그렇게 하여 춘원의 소설 속에서 이름이 남아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 우리도 ‘유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랑을 실천한 사랑스럽고 예쁜 여성을 가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피천득은 서슴없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는 자기가 이상으로 하는 여인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구원의 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여성예찬은 이상적인 모든 여성들의 종합체로서 ‘구원의 여상’을 창조하게 된다.

구원의 여상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단테의 ‘베아트리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헤나의 <파비올라>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리엣도, 워즈워스의 시에 나오는 여인도 구원의 여상입니다.

(중략)

여기 나의 한 여인상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같이 맑습니다.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안개가 어리기도 합니다. 그는 싱싱하면서도 애련합니다. 그는 싱싱하면서도 애련합니다.

(중략)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수줍어할 때가 있고, 양보를 아니 하다가도 밀질 줄을 압니다. 그는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하게 하지 아니하는 푸른 나무와도 같습니다. 옷은 늘 단정히 입고 외투를 어깨에 걸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나 가난한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그는 한 사람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다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지위 재산, 명성 같은 조건에 현혹되어 사람의 가치 평가를 잘못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예의적인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 합니다.

(중략)

그는 남의 잘못을 아랑 있게 이해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광막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고갈되지 않은 윤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유머가 있고, 재치 있게 말을 받아넘기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찌르기도 합니다.

(중략)

성실한 가슴, 거기에는 한 남성이 머리를 눕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입니다.⁸⁸⁾

이렇게 피천득은 작품 「구원의 여상」에서 구원의 여인상을 열거하고 있다. 등장하는 여인들은 완벽에 가까운 여인상을 추구하고 있다. 끝없는 찬사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상’은 아마도 이상적인 피천득 자신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벽에 가까운 여인상인 성모 마리아, 단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릭체, 헤나의 파비올라, 『좁은 문』의 알리사, 워즈워스의 여인들은 ‘구원의 여상’이다. 그리고 피천득은 ‘나의 한 여인상’을 말한다. 즉 푸른 나무와 같은 여인, 가난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인, 가슴에 고갈되지 않은 윤기가 있고,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이라고 한다.

피천득 작품 「엄마」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의 원천은 젊고 예쁜 엄마가 존재한 어린 시절에 두고 있다. 따라서 동심의 세계인 어린 시절은, 아름답고 순정하고 다정한 것들로 이루어진 추억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88) 피천득, 앞의 책, pp.239-243.

인간의 행복의 원형이 되며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다. 현실에의 삶 속에서 부대끼며 흐느적거릴 때마다 삶의 근원인 기억은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원형질이 되는 것이다. 피천득이 어려서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그리움, 나아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딸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여타의 여성 예찬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여상’을 통해서 본 피천득의 영원한 여성인 어머니상에 대해 종합해 보았다. 구원의 여상이 되는 여성은, 가슴에 고갈되지 않은 윤기가 있고, 신의 존재, 사랑의 기도를 믿으려 안타깝게 애쓰는 여자로 끝을 맺는다. 피천득은 ‘구원의 여상’을 완전하고 이상적인 여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애쓰는 여상이라 한다. 피천득은 영원한 여성, 어머니를 찬미하고 있다.

4) 영성의 추구와 관조의 삶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영성과 만나게 된다. 특히 수필가는 자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사색하고 관조적으로 바라보며 문학적 이야기로 창조해 낸다는 점에서 영성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영성을 터득하여 창작한 작품은 사실담으로서 수필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공감을 얻게 될 것이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리라 본다.

피천득의 수필 작품에서 그(작가)의 영성이 표현되고 있는 작품은 「구원의 여상」, 「눈물」, 「기도」, 「이사」, 「너무 많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유순이」 등이 이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에서 그 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작품 「구원의 여상」, 「기도」, 「눈물」, 「유순이」, 「아인슈타인」 등에 대해서 작가의 영

성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피천득의 여성관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피천득은, 찰스 램에 버금가는 여성 예찬론자이자 사랑 예찬론자임은 그의 모든 수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피천득의 수필은 여성적인 미에 대한 사랑과 예찬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천득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여성예찬론자만은 아니다.

수필 「구원의 여상」을 보면,

구원久遠의 여상女像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단테의 ‘베아트리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헤나의 <파비올라>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좁은 길이라고 믿는 알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불타오르던 과거를, 쌓이고 쌓인 재가 덮어 버린 지금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도 되겠지요. 언제라도 불일이나 유람 차 님프 부근에 오시거든 에그비브에도 들러 주세요.” 이런 편지를 쓴 줄리엣도 구원의 여상입니다.

지나간 날의 즐거운 회상과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이
고이 모인 얼굴.
그날그날 인생살이에
너무 찬란하거나 너무 선善스럽지 않은 것.
순간적인 슬픔, 단순한 계교
칭찬. 책망. 사랑. 키스. 눈물과 미소에 알맞은 것.

위즈워스의 이런 여인도 구원의 여상입니다.⁸⁹⁾

피천득의 작품 「구원의 여상」의 일부인 전반부의 내용이다. 연구의 필요에

89) 피천득, 앞의 책, pp.239-140.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천득은 구원의 여상으로 성모마리아, 베아트리체, 파비올라, 알리사, 줄리엣, 워즈워스의 여인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여인들은 단순히 여성의 미와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명작, 단테의 『신곡』, 그리고 와이즈먼의 『파비올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워즈워스의 여인들에서 빛나는 인물들이다. 이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영성이 표상되어 있는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다.

피천득은 이러한 여성들을 구원의 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어떠한 여인인가? 단테의 『신곡』에서, 어느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된 단테가 로마의 대시인 베르길리우스와 만나게 된다. 그의 인도로 지옥과 연옥을 방문하여 천태만상의 인간들의 죄와 벌을 목격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단테를 ‘구원의 여인’ 베아트리체에게 인도한다. 그의 안내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파비올라는, 영국 웨스터민스터의 대주교였던 와이즈먼 추기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이다.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대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적이고 아름다운 귀족이지만 이교도인 파비올라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진리에 매료되어 간다. 결국에는 개종을 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간다.⁹⁰⁾

여주인공 알리사의 『좁은 문』은 앙드레지드의 대표작으로, 사촌 사이인 알리사와 제롬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이다. 세상의 쾌락과 행복보다 더욱 ‘성스러운 세계’를 갈망하는 알리사와 그런 알리사를 사랑하는 제롬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진다.⁹¹⁾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무엇인가? 찰스 R. 솔로몬에 따르면, 인간의 구

90) 니콜라스 와이즈먼, 『파비올라』, 이석현 역. 성바오로딸출판사, 2011 참조.

91) 앙드레 지드, 『좁은 문』. 이미애 역, 지경사, 2008 참조.

조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이 생리적 구조를 이룬다면, 혼은 심리적 구조를, 그리고 영은 영적 구조를 이룬다. 몸이 환경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혼은 지, 정, 의를 통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영은 직관, 양심, 영교 등을 통한 신과의 관계를 구축한다.⁹²⁾고 한다.

안상수는, “여기서 영성은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적 교류의 힘이지만, 작가에게는 대상의 근원적 본질과 교통하기 위한 영적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⁹³⁾

영성은 작가가 대상과 우주의 본질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거나 그것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 영성을 체득한 작가는 대상의 본질을 깨달음의 언어로 암시하거나 상징하는 수법을 쓴다. 이는 마치 상징주의 시인들이 현상 속에 숨어있는 관념(본질) 세계를 철학적 인식 과정을 통해 찾아낸 뒤, 다시 그것을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에 실어 독자에게 들려주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⁹⁴⁾고 한다.

피천득이, 영성을 체득한 작가가 대상의 본질을 깨달음을 언어로 암시하거나 상징하는 수법을 쓴다고 할 때, 다시 그것을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에 실어 독자에게 들려준다면 그 역시 영성을 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리체, 이교도인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파비올라, 성스러운 세계를 갈망하는 알리사는 영성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곡』의 작가 단테와 파비올라를 쓴 작가 니콜라스 와이즈먼 추기경,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영성을 체득한 작가라고 할 때, 피천득이 「구원의 여상」에서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에 실어 독자에게 들려주는 과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므로 피천득은 영성을

92) 찰스 R. 솔로몬, 『영적 치유의 핵심』. 김우성 역, 나침반, 2002. pp.14-15.

93) 안상수, 「작가의 영성과 수필 미학」, 『수필학』 제13집, 한국수필학회, 2005. pp.72-73.

94) 안상수, 위의 책, pp.73-74.

체득한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피천득은 자신의 여인상에 대해 쓰고 있다.

「구원의 여상」의 후반부이다.

여기 나의 한 여상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같이 맑습니다.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안개가 어리기도 합니다. 그는 싱싱하면서도 애련합니다. 명랑하면서도 어딘가 애수가 깃들고 있습니다. 원숙하면서도 옛된 데를 지니고, 지성과 함께 한편 어수룩한 데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벼우나 빨리 걷는 편은 아닙니다. 성급하면서도 기다릴 줄을 알고,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수줍어할 때가 있고, 양보를 아니 하다가도 밀질 줄을 압니다.

그는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하게 하지 아니하는 푸른 나무와도 같습니다.

(중 략)

그는 남의 잘못을 아량 있게 이해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광막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고갈되지 않는 윤기가 있습니다.

(중 략)

성실한 가슴, 거기에다 한 남성이 머리를 눕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지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입니다.⁹⁵⁾

구원의 여상에서 만인의 여인상을 상징하고 있다면 피천득이 상징하는 한 여인상은 작품 「인연」에 등장하는 여인들인 엄마, 서영이, 유순이, 앵두를 주

95) 피천득, 앞의 책, pp.240-243.

있던 시골 소녀, 순례의 물동이를 인 두 여인, 아사코 등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상징하고 있는 여성과 여성미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은 ‘한 남성이 머리를 눕히고 살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볼 때 피천득의 여성은 단순한 ‘여성형’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형이다. 즉 비록 여성에 대한 예찬론으로 보일지라도 기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실로 ‘바람직한 인간상’ 완전한 여인상을 피천득은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실망감과 소외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다. 수필가가 자신이 선택한 대상 세계의 진실과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때 작품은 독자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공명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입니다.’로 끝을 맺는다. 피천득이 상징하고 있는 여인상은 완전한 여인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여인이라고 한다. 비로소 독자들은 마음의 공명의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천득의 수필 「구원의 여상」은 영성의 수필이라 할 수 있다.

피천득은 수필 어디에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수필을 읽어 가면 그 나름의 신앙이 마음속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시인이자 수녀인 이해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와서 영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미루시다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예수회 김태관 신부님으로부터 교리와 영세를 받으셨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라고 쓰고 있다.⁹⁶⁾ 또한 피천득은 수필 「잠」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남이 늘어놓으면 눈을 감고 있다가 자 버리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런 배짱

96) 이해인, 「금아 선생님께」,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p.17.

이 없지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곧잘 잠을 잔다. 찬미 소리에 잠이 깨면 천당 갔다 온 것 같다.”⁹⁷⁾라고 해 그 자신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피천득은 그런대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상은 영성을 “신, 인간, 그리고 우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신령하고 성스러운 품성과 성질”⁹⁸⁾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피천득은 영성을 체득한 작가로서 그의 「구원의 여상」은 그런 영성의 수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피천득의 수필에 나타난 한 가지 사항은 그의 수필 어디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직접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필을 통독하면 그 나름으로 그에게 신앙이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피천득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성경』에서의 아름다운 데를 신약과 구약에서 각각 한 군데씩 그는 지적하고 있다.⁹⁹⁾

다음은, 성경에서 아름다운 데를 인용해서 쓴 수필 「눈물」, 예수의 말을 인용한 수필 「기도」에 나타난 영성의 세계를 살펴보자.

먼저 「눈물」을 보면,

이별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어려서 울기를 잘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기다리고 있듯이 울었다. <사랑의 학교>라는 책 속에 있는 난파선 이야기 위에는 나의 눈물 자국이 있었다. 채플린이 데리고 다니던 재키 쿠칸이라는 어린 배우는 나를 많이 울렸다. 순이가 나하고 아니 논다고 오래오래 울기도 하였다. 입이 찻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찻찻한 눈물. H₂O보다는 약간 복잡하더라도 눈물의 분자식은 다 같을

97) 피천득, 앞의 책. p.233.

98) 이기상, 『철학 노트』. 까치, 2002, p.305.

99)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의 세계」, 앞의 책, 샘터. pp.181-182.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의 다양함이여! 이별의 눈물, 회상의 눈물, 체념의 눈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의 눈물, 결혼식장에서 딸을 인계하고 나오는 아빠의 눈물, 그 정한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 맞은 나무가 청신하게 되듯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 준다.

눈물은 인정의 발로이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스러운 물방울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테를 묻는다면 하나는 이역異域 옥수수 밭에서 향수의 눈물을 흘리는 룻의 이야기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한 탕녀가 예수의 발 위에 흘린 눈물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다. 미술품으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 저 많은 노래들은 또한 눈물을 머금고 있지 아니한가.

도시에 비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이 ‘눈물이 내리는 마음’이 독재자들에게 있었다라면, 수억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가솔린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기막힌 표어가 있었다. 석유 회사 타이피스트 그레이스의 그 눈물에는 천만 드림의 정유보다 소중한 데가 있다.¹⁰⁰⁾

피천득은 지능지수 IQ 못지않게 감정지수 EQ도 중요하게 여기는 수필가인 듯하다. 「눈물」에서 이별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예수는 짧은 생애 동안 세 번만 울었다지만, 피천득은 어려서 울기를 잘하였던 감상주의자다.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릴 줄을 아는 연민의 정을 가진 작가이다.

피천득은 눈물의 다양함에 대해 “이별의 눈물, 회상의 눈물, 체념의 눈물, (중략) 그 정한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 맞은 나무가 청신하게 되듯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눈물은 인정의 발로이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테에는 두 군데라고 한다. 하나는 이역의 옥수수 밭에

100) 피천득, 앞의 책, pp.73-75.

서 향수의 눈물을 흘리는 룻의 눈물, 그리고 하나는, 한 탕녀가 예수의 발 위에 흘린 눈물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다.¹⁰¹⁾

예수는 빛진 자에 대한 비유로, 빛을 백 데나리온을 진 자와 오백 데나리온을 진 자 중 빛을 탕감 받았을 경우 누가 더 저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¹⁰²⁾ 이기상은 영성을 “신, 인간, 그리고 우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신령하고 성스러운 품성과 성질”¹⁰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눈물은 한 탕녀의 참회의 눈물이라 할 수 있다. 예수는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¹⁰⁴⁾고 말씀하신다. 피천득은 다양한 눈물 가운데 죄 많은 탕녀의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한다. 피천득의 신앙(영성)이 드러나는 수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수필 「기도」를 보자. 피천득은, 작품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의 기도’인 “저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고,”¹⁰⁵⁾ 하신 말씀을 우리 말로 드리는 으뜸가는 기도로 보고 거기에서 특히 인간미를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창녀의 기도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마리아를 구원의 여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피천득은 「기도」에서 인간미를 터득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하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기도입니다. 브루흐의 <콜리드라이>와 바다르제우즈카의 <소녀의 기도>는 음률로 나타낸 기도이고, 엘 그레코의 <산토 도밍고>나 밀레의 <만종>은 색채로 이뤄진 기도입니다.

101) 누가복음 7:38.

102) 누가복음 7:41-42.

103) 이기상, 『철학 노트』. 까치, 2002. p.305.

104) 누가복음 7:50.

105) 마태복음 6:11.

말로 드리는 으뜸가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고...” 하신 말씀은 그의 인간미를 느끼게 합니다. “빵에 잼을 많이 발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프랑스 아이가 있 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타고르의 <기탄잘리>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읽은 짧고 감명 깊은 기도가 있으니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¹⁰⁶⁾

「기도」에 대해서, 피천득은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하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음률로, 또는 색채로 이뤄진 기도도 있다고 했으니, 찰스 R. 솔로몬¹⁰⁷⁾에 의할 때 이것들은 곧 영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 드리는 으뜸가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오늘의 양식(빵)을 주시옵고...” 하신 말씀은 그의 인간미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중 략) 내가 읽은 짧고 감명 깊은 기도가 있으니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¹⁰⁸⁾

피천득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인 듯하다. 솔로몬은 지혜를 백성을 위해 쓰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¹⁰⁹⁾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피천득은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요, 말로 하는 주기도도

106) 피천득, 앞의 책, p.284.

107) 그는 영은 직관, 양심, 영교 등을 통한 신과의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찰스 R. 솔로몬, 『영적 치유의 핵심』. pp.14-15.

108) 피천득, 앞의 책, p.284.

109) 열왕기상 3:9.

기도이며, 그중에서도 그는 감명 깊은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사용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유순이」와 「아인슈타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순이」에서, 「유순이」는 상해사변 때의 이야기다. 한때 자신이 입원했던 적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절한 간호부의 이야기다.

나는 서가회라는 곳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을 하였었다. 그리 심한 병은 아니었으나 기숙사에는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하였던 것이다.

요양원이 있는 곳은 한적한 시외였다. 주위에는 과수원들이 있었고, 멀리 성당이 보였다.

병실이 많지 않은 아담한 이 요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별장이나 작은 호텔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흑단 화장대 거울에 정원의 고목들이 비치는 것이었다. 간호부들의 아침 찬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들 얼마나 고적하였을까.

내가 입원한 그 이튿날 아침 작은 노크 소리와 함께 깨끗하게 생긴 간호부가 들어왔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그는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그때의 나의 놀람과 기쁨은 지금 뭐라 형용할 수가 없다.

(중 략)

그는 틈만 있으면 내 방을 찾아왔다. 황해도 자기 고향 이야기도 하고 선물로 받았다는 예쁜 성경도 빌려 주었다. 자기는 ‘누가복음’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타고르의 <기탄질리>를 나에게 읽어 줄 때도 있었다.¹¹⁰⁾

피천득은 상해사변 때의 일을 회고하고 있다. 한때 입원했었던 요양원의, 황해도가 고향이라던 유순이라는 간호부가 걱정되었던 피천득이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요양원엘 찾아갔다.

110) 피천득, 앞의 책. pp.153-155.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위험한 곳을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나를 자기 일하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총소리, 대포 소리가 연달아 들려온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를 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바라다보았다.

(중략)

지금 살아 있는지 가끔 그를 생각할 때가 있다.¹¹¹⁾

총소리, 대포 소리를 들으며 상해와 멀리 떨어진 교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유순’이에게 피난 가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유순이는 환자를 내버리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저는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를 내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유순이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포화 소리는 점점 가까워오고 신변의 위험은 다가오고 있었다.

피천득은 기숙사에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한 요양원에서 아침 찬미를 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녀는 ‘누가복음’을 좋아한다며 예쁜 성경책을 선물을 하기도 한다. 그런 유순이에게 전쟁을 피해 떠나자고 하지만,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들을 내버리고 갈 수가 없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귀국 후 피천득은 유순이의 생사를 알 수 없었지만, 유순이는 춘원의 『흙』의 주요인물 유순이로 되살아나서 우리들과 예술적인 영성의 세계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수필 「유순이」는 영성수필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에서 보면, 피천득이 이해한 아인슈타인의 신은 기독교적인 신이 아닌 듯하다. 그의 신은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었다. “그의 신은 개인

111) 피천득, 앞의 책. pp.158-159.

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요, 우주의 모든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이다.”(「아인슈타인」).

한 소녀가 산수 숙제를 못하고 애를 쓰다가 그 동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사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촌영감 같은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오라고 하셨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 뛰어가서 사과를 드렸더니, 아인슈타인의 대답이 “내가 아기한테서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는 한 성령聖靈을 믿는다. 그는 말하기를,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한 성령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우리가 겸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의 신은 개인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다.¹¹²⁾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소박한 시골 영감의 모습이다. 어린 소녀의 산수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할아버지다. 아이 엄마의 사과에 대해, 오히려 “내가 아이한테서 배운 게 더 많다.”는 그는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한 성령을 확신한다. 대 과학자인 그가 자신의 대수롭지 않은 능력이라며 겸허함을 느끼는 영적인 것을 확신한다.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이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유순한 눈이 크고, 길게 뺀 흰 백발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헌옷을 걸치고, 넥타이를 매는 적이 별로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기를 좋아하였다.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사회 부조리를 극력 반대하였다. 자기의 유해를 화장하여 그 재를 바람에 날려 달라고 하였다.¹¹³⁾

112) 피천득, 앞의 책, pp.206-207.

113) 피천득, 앞의 책, pp.207-208.

아인슈타인은 길게 뺀 백발, 아무렇게나 헌옷을 걸치고, 자전거를 타고,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사회 부조리를 반대하고, 자기의 유해를 화장하여 바람에 날려 달라고 한 평화주의자이다. 뉴턴 이래의 최대의 과학자라는 칭송이 아니라도 그는 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으로 본다고 피천득은 이야기하고 있다.

피천득의 수필 「구원의 여상」, 「눈물」, 「기도」, 그리고 「유순이」, 「아인슈타인」 등의 수필의 세계에는 영성의 추구와 관조의 삶의 모습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필가의 영성 계발은 한마디로 한국 수필계의 질적 발전을 이끄는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영성이란 작가가 대상의 본질을 관조하는 초월적인 힘이다. 이를테면, 대상의 근원 세계에 대한 본질 직관이나 본질 관조의 힘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필가는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는 달리 자기 체험을 소재로 하여 인간적 진실을 관조적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점에서 영성 수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하다.

따라서, 이 시대를 진정한 수필의 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성을 터득한 작가들이 영적 독자들의 영혼을 울리는 작품을 생산하고, 독자들이 영적 독서를 통해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⁴⁾라는 안상수의 말에 본 연구자는 동감한다.

114) 안상수, 앞의 책. p.80.

V. 결 론

본고는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금아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수필의 세계와 형식적 기법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그의 생애와 문학을 살펴보았다. 그는 어지러운 한국근대사를 몸소 체험하고 견디었다. 피천득은 결국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의 믿음 아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고 놓치기 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작품(수필) 창작을 했던 것이다. 그는 문학을 통해서 현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식면에서 수필을 논의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수필 형식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에 대한 인식은 수필이 전혀 무형식의 글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형식이 자유로운 편이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3장에서는 피천득 수필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필에서도 내용인 주제를 승화시키기 위한 표현 형식으로 문장, 문체, 구성 등이 사용된다. 즉 수필은 미학적 표현 기법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특성인 수사법이 활용되어서 개성적인 문체가 창조된다. 금아의 이런 수필들의 형식적인 면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피천득 수필집 『인연』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표현 기법의 특성인 명료하고 간결한 서술미,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피천득의 수필은 「장미」, 「오월」, 「맛과 멋」에서 억지스러움이나 굳어터지는 물론 속됨이 없이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명료하고 간결한

서술미'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다. '은유법과 시적 세계 지향'에서는, 수필도 시처럼 쓰고 싶었다는 피천득이 수필을 쓸 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산문적이라기보다는 시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비유와 상징으로 수필을 썼다. 수사적 표현 기법인 은유로, 그리고 상징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많이 썼다.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에서는, 시작하는 이야기나 사물에 관한 보기를 구체적으로 든 다음 그것을 자신의 인생관이나 현실의 일로 연결 짓는 데 이미지 연결 기법을 활용하였다. '회고적 관점의 이미지 연결법'으로 수필 작품 「인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변에서의 시간적 질서와 공간적 거리 그리고 꽃의 비유법으로 잘 짜여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의 연결로 문체를 구성하고 있다. 피천득 수필에서 중추를 이루는 두 여성 '엄마'와 딸 '서영이'에 대해, 그리고 '구원의 여상'에 이르는 여성의 모습을, 그는 여성적 부드러움의 미학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다른 사랑과 외로움 속에서 겪은 피천득의 개성 형성 과정이 이런 수필 문체의 특성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피천득 수필의 세계를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 영성의 추구하고 관조의 삶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박한 삶의 멋과 운치에서, 피천득은 민족과 사회를 위한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보지도 못했으며(「송년」), 그러나 그는 작고 사소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한평생 조용하게 살아 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인간미의 세계에서, 그가 다룬 대부분의 인물들이 위인이나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위대한 행적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작고 소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천득은 가르침을 받은 스승뻘의 인물이나 친지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들의 인간미를 높

이 사고 있다. 영원한 여성 어머니의 찬미에서, 피천득은 생명력을 가진 젊은 여성을 예찬한다. 「여성의 미」에서 나열해 보여준 여성과 같이 그의 예찬을 받을 만큼 합당한 여성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삼십 대에 자신의 곁을 떠난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여성의 표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 딸이라는 대상은 사랑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여성 예찬의 경지에, 그리고 ‘구원의 여상’ 이해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영성의 추구와 관조의 삶에서, 피천득 수필문학의 특성인 영성의 작품으로 「구원의 여상」, 「눈물」, 「유순이」, 「기도」, 「아인슈타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원의 여상」에서는,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명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베아트리체와 파비올라 그리고 알리사 등이 작가의 영성이 표상되어 있는 여인들이다. 단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리체, 이교도로서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파비올라, 성스러운 세계를 갈망하는 알리사 들도 영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천득이 상징하는 구원의 여상은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것이 여성에 대한 예찬론으로 보일지라도 기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실로 ‘바람직한 인간상’ ‘완전한 여인상’이 무엇인지를 피천득은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엄성, 진리와 미,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여성입니다.”로 끝을 맺는다. 피천득이 상징하는 여인상은 완전한 여인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보려고 애쓰는 여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비로소 독자들은 마음의 공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피천득 수필의 기법과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피천득 수필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피천득은, 수필은 그 제재가 무엇이든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쓰는 것

이라 하여 수필문학이 가진 표현의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필 문학은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경우 수돗물과 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여 섬세한 짜임새와 표현의 참신성을 보여 줌으로써 오늘날 수필문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피천득은 당시의 수필문학의 정형성을 떠나서 서정적 수필을 써서 대중의 수필화를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의 제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그의 표현 기법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인생의 향취와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수필세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사소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피천득 수필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수필문학에 있어서 피천득 수필의 서정성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서정적 수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아 수필의 사회성의 한계[결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피천득 수필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 나타난 그의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피천득의 수필에 나타난 문학과, 수필에 표상된 영성의 세계와 문체의 특성 등을 연구하고 영성을 체득한 수필가로서의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수필문학사에서 금아 수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가 다음의 연구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어 수필문학의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환·윤재천·장백일. 『수필문학론』. 서울, 개문사, 1983.
- 김금주. 「민족의 전개와 초기 영문학- 피천득 선생을 찾아서」. 『한국 영문학의 어제와 오늘2』. 안과밖, 1997.
- 김상배. 「피천득의 문학세계」. 단국대 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3집. 1989.
- 김영구 (외). 『문학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대출판부, 1995.
- 김영무. 「작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몇의 시」,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 김우창. 「금아 선생의 수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 _____. (외). 『산호와 진주와 금아 -피천득을 말하다』. 샘터, 2003.
- _____. 「피천득론」, 『수필』. 범우사, 1994.
- 김정빈 (편). 『피천득,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샘터, 2007.
- 김진섭. 「수필의 산문적 영역」. 『수필문학』 통권 제35호, 1975.
- 김태길 (편). 『수필문학의 이론』. 서울, 춘추사, 1991.
- 류현경. 「피천득의 『인연』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연구. 『수필과 인생』. 범우사, 1994.
- 박혜정. 「피천득 수필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성기조. 『수필이란 무엇인가』. 학문사, 1994.
- 안경란. 「피천득 수필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윤오영. 『수필문학입문』. 태학사. 2011.

- 윤재천. 『수필문학의 산책』. 도서출판 이진, 1990.
- (편). 『수필작법론』. 세손출판사, 1994.
- . 『수필창작과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교육문화, 1990.
- . 「피천득의 작품세계」, 『운정 수필론』. 세손출판사.
- 이명재. 『한국문학의 다원적 비평』. 작가와비평사, 2011.
- 이선주. 「인물기행, 피천득 - 90에 엄마와 막내딸 못 잇는 가난한 행복」. 『한국논단』. 18권 1호, 1996.
- 이영숙. 「피천득 수필의 시간구조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영조. 「한국 현대 수필론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혜선. 「피천득의 시와 수필」.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문학비평』, 제17집, 2010.
- 임영천. 『수필 문학의 이해』. 빛나리, 2012.
- 임정옥. 「피천득의 수필관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임현영. 「연미복 신사의 무도회」. 『현대수필』, 2004. 봄.
- 장백일. 『현대수필문학론』. 집문당, 1994.
- 정덕순. 『한국수필문학사』. 박이정, 1995.
- 정목일. 「피천득 선생 「수필」이 보인 전범과 경지」. 『현대수필』, 2004. 봄.
- 정정호. 「나의 영원한 스승 금아 피천득 선생님: 영어, 영시, 그리고 문학으로의 초대」. 『영미문학교육』 제14집 2호, 2010.
- _____. 「'인연', '기억', '여림', '돌봄'의 생태학」.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 정진권. 「수필문학의 구성 고찰」, 『한국수필문학연구』. 신아출판사, 1996.

- _____. 『수필쓰기의 이론』. 학지사, 2000.
- _____. 『한국현대수필문학론』. 학연사, 2005.
- 차주환. 「피천득의 수필세계」, 『산호와 진주와 금아』. 샘터, 2003.
- _____. 「피천득의 수필세계」, 『피천득의 수필』. 범우사, 1998.
- 최영숙. 「피천득 수필문학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피천득. 「숙명적인 반려자 내 문학의 뿌리」. 답게(출판), 2005.
- _____. 「시와 함께한 문학인생」, 『내가 사랑하는 인생』. 샘터, 2005.
- _____. 『어린 벗에게』. 여백미디어, 2002.
- _____. 『인연』. 샘터, 2011(3판, 20쇄).
- _____. 『인연』. 샘터, 1996(초판).
- 황필호. 「피천득론」. 『우리 수필평론』. 집문당, 1997.

ABSTRACT

A Study on Pi Cheon-deuk's Essays

Moon Jung-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Pi Cheon-deuk's essay literature in the aspect of content and form by mainly analyzing his essays put in his collection of essays, **Affinity**.

In the aspect of content, this study divided his world of essay literature into his lifetime and literature, his living and human, his view of women, and his spirituality, and then, investigated them.

First, in his lifetime and literature, it seems that he who had experienced the confused history of modern Korea himself has kept an 'esthetic' distance from reality at a degree through his literature.

I could see his view of living by investigating his lifetime during which he had pursued trivial but beautiful things and lived a calm life. In his view of human, he focused on the trivial and simple things which had not been revealed in the great activities of most characters dealt with in his essays.

In his view of women, he admires the viable young woman. It

seems that the young and beautiful image about his mother who had died in her thirties was itself that of wom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irituality of **A Woman of Eternity, Tears, Yu-suni, Prayer**, etc., of the essays in which he revealed the spirituality, the characteristic of his essay literature.

The characters who had been in the masterpiece famous in the history of world literature appeared in the spiritual essay, **A Woman of Eternity**.

In **A Woman of Eternity**, Beatrice who ushers Dante's soul into the heaven, heathen Fabiola who is searching for the love of truth and the real meaning of life, and Elisa who desires the divine world, all could be the spiritual characters.

The woman's image which he wants to represent can not be the image of a perfect woman, but be the image of the woman who endeavors to believe in God, the dignity of soul, truth and beauty, love and prayer, etc.

In the aspect of for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 of his description technique in his essays mainly through his collection of essays, **Affinity**. Concretely speaking, this study divided the characteristic of his description technique of concise writing style, the rhetorical description technique of images connection, and the women-oriented description technique, and then, analyzed them.

The description technique of concise writing style is to describe things through concise writing style without not only unnaturalness and

superfluosness, but also vulgarness.

In rhetorical description technique, this study can ascertain that he wrote many essays by metaphor and symbol. In the retrospective description technique, he showed the composition well made up with temporal order, spatial distance and analogy using flowers.

The women-oriented description technique indicates that he describes the women who are at the center of his essays tendentiously.

This study can ascertain that his individuality formation through his strangely women-oriented love and loneliness is revealed in his essays as the characteristic of his writing style. As written above, I have tried to investigate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his essay literature in the aspect of content and form.

At the same time, I hope this study to be able to be the study arousing the sympathy from the writers who is now working and the readers by this study investigating his view of literature revealed in his essays, his spiritual world and characteristic of his writing style expressed in his essays, his life and literature as the essayist who mastered the spirituality.